

선배들이 전하는

2020학년도 교사임용 합격 노하우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선배들이 전하는
2020학년도
교사임용
합격 노하우

차례

사범대학장 격려사_ 04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1탄_ 06

달력 일정표에 새긴 '초수 합격'_ 08

묵묵히 차분하게 걸어가라_ 13

임용, 유캔두, 야너두_ 16

4년의 마무리, 새로운 시작_ 21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_ 27

선택과 집중으로_ 34

해답은 없습니다_ 40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2탄_ 46

기출 경향을 잘 체크하라_ 48

초수합격, 이루어'지리'_ 54

스트레이트를 고민하는 선생님들께_ 60

합격의 왕도? 나에 대한 성찰_ 67

'광야의 축복'_ 72

예비 특수교사를 위한 합격수기_ 77

나는 어떤 교사가될 것인가_ 82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3탄_ 88

사범대학장 격려사



제25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이성현

우수한 교사를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은 1972년 첫 발을 디딘 후 어언 49년이란 성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15,000여명의 훌륭한 교사를 배출하여 광주·전남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전남대 사범대인으로서 자랑스럽게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대학은 올해 343명(공립 298, 사립 45)의 사상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광주·전남 214명을 비롯해 경기 44명, 전북 24명, 서울 15명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하여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전년대비 7.7%의 모집인원 증가율에 비해 우리대학은 24.7%의 합격인원 증가율을 보이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중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대학 출신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과 대학·학과(부)의 적극 지원, 교수·조교·직원 선생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녹록치 않은 교원 수급 환경 속에서도 우리대학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함께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2020학년도 합격수기를 통해 여러분이 교사의 꿈에 다가가는데 필요한 정보 및 원동력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합격수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이후에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범대학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전하는
2020학년도
교사임용
합격 노하우

달력 일정표에 새긴 '초수 합격' / 묵묵히 처분하게 걸어가라 / 임용, 유캔두, 야너두
 4년의 마무리, 새로운 시작 /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 선택과 집중으로 / 해답은 없습니다
 기출 경향을 잘 체크하라 / 초수합격, 이루어 '지리' / 스트레이트를 고민하는 선생님들께
 합격의 왕도? 나에 대한 성찰 / '광야의 축복' / 예비 특수교사를 위한 합격수기 / 나는 어떤 교사가될 것인가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Q. 임용준비에 뛰어드는 후배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나요?

① 초수니까 그냥 경험으로 봐보자 하는 마음, ②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③ 스마트폰
- 영어교육과 16학번 **이푸름**(영어)

① 무기력, ② 술, ③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경계하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면 그 만큼 두 배, 세 배 많이 공부한다면 또는 나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찾아 공부한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교육과 14학번 **임진택**(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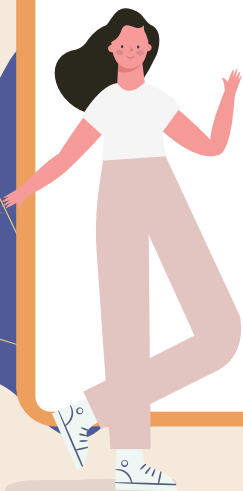
① 강사의 말을 맹신하는 것, ② 시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늘어지는 것, ③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것

- 지리교육과 16학번 **조상은**(지리)

Q. 교직수업이 교육학 공부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교직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학시험은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많지만 시중에 있는 교육학 강사들은 2권을 가지고 주로 수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학강사들의 교재는 중요한 개념만을 강사의 선택으로 짜집기한 내용입니다. 교내에서 듣는 수업은 1학기에 한강좌씩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꼼꼼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교직수업에서는 학점을 따기 힘들어서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이 교육학강의를 들을 때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암기에 수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학 강의를 일찍 듣지 마시고 교내 교직수업을 신경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특수교육학부 16학번 **이민주**(중등특수)





네.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교육학을 교직 수업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임용을 준비할 때 열심히 들었던 교직 수업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과 임용 공부를 분리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음악교육과 15학번 주다은(음악)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언제쯤 따는 게 좋을까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적어도 **3학년 때까지 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4학년 교생 때 급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부했었는데 이 때문에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 시간을 많이 뺏겼었습니다. 늦어도 4학년 되기 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따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EBS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위한 최태성 선생님의 무료 강의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교육학과 14학번 임지웅(전문상담)

Q.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학교를 일정 기간마다 순회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한 재단에 속한 학교 내에서 돌기 때문에 근무지의 큰 변경은 없습니다만 학교 내의 선생님들과 정년까지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학생지도, 행정업무, 수업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TO가 줄어두고 있고, 임용시험 문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립도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한다면 빨리 선생님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역사교육과 14학번 김민재(역사)



합격달력 일정표에 새긴 ‘초수합격’



자신의 꿈을 위해 교사라는 길을 선택한 분들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대부분이 교사임용 시험이란 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기에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저의 수기가 가정과 교사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걱정을 덜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는 이를 통해 자신만의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 주 경
가정교육과 16학번 (가정)

출발과 도착을 위한 마음가짐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계속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임용시험의 출발을 위한 조언은 먼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근거는 없지만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법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차 시험이 교사임용시험의 출발점이라면 2차 시험은 도착을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2차 시험 특성상 스터디원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저도 2차 준비는 미흡한 편이라 걱정하고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의 **좋은 점은 배우는 것으로 끝내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단계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먼저 **1,2학년 때**는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 강의를 집중하여 들어야 자신의

흥미와 맞는 전공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임용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도 있으므로 자신이 **중간, 기말고사 때 정리한 노트도 남겨두면 간단히 참고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하므로 교육봉사나 교양 수업 등을 통해 최대한 넓은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본격적인 임용시험을 위한 분기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수생이라 교육학, 전공 모두 1년 치 온라인 강의 순서에 따라 공부했기에 분기별 순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권화와 서브 노트 제작은 여름방학 전까지 만들어두고 여름방학에도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을 첨가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도 1차시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마인드맵과 문제풀이 강의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는 한 영역을 5~6일 보던 것을 2~3일 정도 재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주에는 하루에 전공 2~3개씩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분	교육학	전공	교과서 분석 및 수업실연	비고
3학년 겨울방학		주생활 이론 (2019년대비)		• 단권화 • 서브노트
4학년 1학기	키위교육학이론 (1~4월)	의, 식, 소비, 가족생활, 교육론 (2020년대비)		
4학년 교생실습	기출분석 (5~6월)		교과서 분석	
4학년 여름방학	키위마인드맵 (7~8월)	문제풀이반		
4학년 2학기	최종모의고사 (9~11월)	모의고사반		
D-100				
1차시험 당일	서브노트, 마인드맵 활용			
1차시험 이후		교과서 분석/ 면접 및 수업실연 준비		
2차시험 당일			시책, 면접 책 공부 중1, 중2교과서 공부	

1차 준비를 위한 교육학

처음 시작의 경우 교육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먼저 **학교 내 교직 수업을 집중하여 들어두면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별도의 스터디 없이 공부하였는데, 내용 기억에 효과적이기 위해서 **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여 인출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영역별로 하루의 양을 세분화하여 여러 번 읽고 외운 뒤 마인드맵처럼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채워 넣어 내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적으면서 공부하기보다 키워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모의고사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다시 풀어보면서 내용을 익히고 오답까지 외울 수 있습니다.

1차 준비를 위한 전공 학습

임용공부 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전공영역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용준비를 위해서는 **이해와 기억하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이해를 위한 기반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활동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론적 기본을 잡고 관련된 다양한 전공서를 합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단권화**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고 여러 번 읽었고 그다음으로 기억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교육학과 똑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Q&A에 적어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 노트를 만들어두면 시험 당일 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서브 노트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 듯이 가지를 만들고 최대한 핵심과 눈에 보이기 쉬운 도식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전공서, 교과서, 오답 내용을 적어가며 세부 내용을 채웠습니다.

2차 준비를 위한 작은 조언

2차 준비에 대한 조언에 앞서 먼저 강원도 지역에 응시하였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지역 자체 면접 준비를 위해 12월에는 **교육청에 주요업무 시책을 찾아 시책 공부를 하고 면접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단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레시피**(류은진, 2019) 책을 참고하여 주제별로 자신만의 서론을 만들어두고 핵심 내용을 분석해 두었습니다. 1차 결과 발표 후 **네이버 밴드**로 **면접 준비**를 하였는데 음성녹음 기능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응시자와 함께 면접책 문제와 시책 문제를 엮어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시책도 외우고 면접 관련 이론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준비 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수업 실연을 준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 분석**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교과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12월에는 교과서 내용 숙지를 위해 짝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또한, **단원별로 내용을 배우는 이유, 학생이 오답하거나 모를 수 있는 내용, 핵심 내용을 찾아두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질문과 대답 형태로 만들어두면 좋은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시간관리〉단원 예시

(도입) T :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 왜 배워야 할까요?

S :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요 .. 등

(순회지도) T : ○○이는 목표 세우는 것이 어려운가 보군요. 이번에는 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볼까요?

S : 구체적이고 마감기한이 있어야 해요/ 측정 가능해야 해요 .. 등

그 다음으로 순회지도는 만능틀을 만들어두되 개인지도, 모둠 내 도움받기, 전체 학생 도움처럼 다양한 틀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따라 다문화 학생을 넣기도 하고 주로 잘하는 학생(모둠), 도움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시간 확인을 한 뒤 마지막에 활동을 마쳐서 심화 자료가 필요한 학생 순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원과 수업 실연 문제 제작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교과서를 분석할 기회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내용별로 동기유발 자료나 유용한 설명 방법, 주요 수업 모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원과 같이 문제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기를 마치며

시험을 준비하면서 달력 일정표에 매달 넘어갈 때마다 큰 글씨로 ‘초수 합격!’하고 적어두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자신을 붙잡아 시험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생각을 바꾸니 마지막 달은 이상하게도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힘든 그 기간이 긴장감 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항상 응원하고 매일의 노력에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정과 임용고시 시험을 위한 추천 도서·인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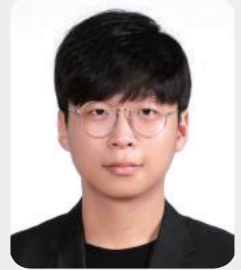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서 온라인 강의 문제집을 개론서로 바탕을 두어 전공책 내용을 합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임용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에 다양한 전공책을 참고하고 핵심내용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개론서	인강	추천도서	기타
교육학	1. 김현 키워 교육학	〈김현 키워 교육학〉 이론, 기출분석, 마인드맵,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		
가정과 교육론	2. 가정과교육론 (채정현) 3.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실연(채정현) 4.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이연숙)	〈임정애 전공가정〉 이론반, 문제풀이반, 최종 모의고사반 온라인 강의	1. 임정애의 '전공가정 교육과정 교육론'	〈문영은 전공가정〉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인드맵 자료 +) 가족 생활은 복지로의 제도를 참고
의생활			2. 패션과 문화 3. 새 의류관리 4. 의복구성학 5. 피복재료학	
주생활			6. 넓게보는 주거학 7. 신개념주거학 8. 실내 디자인	
식생활	5. 임정애의 '전공가정' (의,식,주,소비,가족)		9. 과학으로 풀어쓴 조리과학 10. 생애주기 영양학 11. 21세기 영양학 12. 식사 요법	
소비생활			13. 소비자의의사결정 14. 가정경제학	
가족생활			15. 가족관계학 16. 아동발달	

묵묵히 차분하게 걸어가라



제가 교사 임용시험 공부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용고시 공부라는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것은 반드시 교사가 되어 교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 하나였습니다.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1월과 2월은 긴장과 설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다면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지 응
교육학과 14학번(전문상담)

교사임용시험 합격 마음가짐

임용시험에 있어 중요한 마음가짐으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방대한 양의 공부를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

1~2학년	이 시기에는 직접적인 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보다는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교직 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되 교사가 어떤 직업이고, 자신이 교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자신의 교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학년	본격적으로 자신이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교육봉사활동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 해야 합니다.

4학년

4학년은 이제 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1~6월 사이에는 임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배운 것을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에는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출제 동향이나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11월 때까지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끊임없이 복습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실전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교육학

학교에서 교직 때 들은 수업은 교사임용시험의 교육학을 공부할 때 좋은 배경지식이 됩니다. 교육학은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서 점수를 잃게 되었을 때 교육학점수를 통해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전공과 교육학 공부 비율을 8:2** 정도로 배분하여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학습 습관·태도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반기 때에는 너무 무리하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월 땀 쉬더라도 하루에 최소한의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 임용시험같이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반기에 공부를 위해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면접 준비

면접 준비는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1차 시험 전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1차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차 시험 후에 **면접 스테디를 구하여 실제처럼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합격 발표 전까지 면접을 위한 개념을 완벽히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합격 후에는 실제 면접처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디원끼리 실제 면접처럼 답변하면서 서로의 비언어적인 태도와 답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3가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야합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과 지역별 커트라인 점수와 같이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이러한 숫자는 자신의 임용 시험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경쟁률과 지역별 커트라인 점수를 참고하되 자신을 믿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단 하나의 공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득점을 받은 사람의 공부법이라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고 자신의 공부법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꾸준히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임용, 유캔두, 야너두



안녕하세요. 2020년도 중등임용고사에 합격한 물리교육과 16학번
임영준입니다. 자랑부터 하자면, 저는 1차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입니다. 흔하고 성의없는 합격 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나에게 맞는! 나만의 공부법이기에 때문에 특별함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재학생 여러분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의 피나는 노력을 생생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본인은 공부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최선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 조금씩 습관처럼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임용...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임 영 준
물리교육과 16학번(물리)

나는 원패스 할 사람이다.

학교생활 하면서 저는 항상 원패스 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학점도
제대로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럴수록 진짜 원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있어도 **‘할 수 있다, 난 원패스를 할 사람이다.’**를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며 해결했고, 끝내
초수에 합격했습니다. **자신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재학생 때 합격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
하세요.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0시간 공부하세요.’ 저는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원
패스를 포기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임용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공부를 몇 시간씩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업을 짹 채워서 들었고, 한국사 자격증도 1학년 겨울방학에 미리 뒀습니다.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어려운 전공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일반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평일만 하루 서너 시간씩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8월부터 ‘한창민의 직관물리’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듣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임용 전문 강사들이니까 개념들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두었을 거로 생각하고 인강을 들었습니다. 1단계 인강을 들었고, 써웨이 대학물리학 문제 위주 로 풀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교육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태련 교육학’ 인강을 들었습니다. 정리돼 있는 교재(핵심독) 가 있는데 조금씩 외웠습니다. 또한, 직관물리 2단계를 듣고 써웨이 대학물리학을 풀었습니다.
4학년 1학기	교생을 나가서 공부할 시간이 전혀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교육학은 꾸준히 외웠고, 물리 기출을 조금씩이라도 풀었습니다. 교생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연도별로 하루에 한 개씩 풀었습니다. 교육학 암기를 꾸준히 했고 직관물리 3단계를 들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	여름방학부터 물리교육론 공부 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한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퍼펙트 물리와 직관물리 4단계를 공부했습니다.
4학년 2학기	전공은 아는 내용만 복습했습니다. 교육학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주로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암기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1차(2차) 시험당일	당일에 준비물과 간식만 챙겨갔습니니다. 쉬는 시간에는 여유롭게 가져온 빵이랑 과일 먹었습니다. 이걸 사람마다 다를 겁니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에 본다고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할 거 가져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니다.
1차 시험 이후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이 돼서, 시험이 끝나고 선배들과 스터디 그룹을 짰습니니다. 스터디 그룹을 우선적으로 짜고 일주일 쉰 뒤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업실연과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교육학 박살내기

저는 전태련 교육학에서 이론 부분만 들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인강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강사의 모의고사 자료를 분석하고 모의고사에 나온 개념과 임용고사에 자주 출제된 영역부터 외웠습니니다. 암기방법에서 특징을 꼽자면 **개념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표시해두고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니다. 키워드만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은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운 적도 있었는데, 반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2주 전부터는 새로운 것을 보기보다는 외웠던 것들을 상기했습니다. 중 단원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책에 써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넣는 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둘이서 범위를 정해놓고 각자 외워온 뒤 서로 문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바의 귀납적 모형의 특징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식으로요. 개인적으로 교육학 공부하는 거 정말 싫었는데, 친구랑 하나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학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스터디 하세요!**

전공 박살내기

〈일반물리〉

저는 2학년부터 이틀에 한 장씩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하루는 개념과 예제 풀이, 다음 날에는 문제 풀이와 개념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틀린 문제는 꼭 표시해두고, 다시 풀어서 맞혔다고 표시 지우지 말고 꼭 다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브노트는 ‘내가 정말 아는 개념이다.’하는 것은 뺐습니다. 중요해 보이는데 생소하거나 자꾸 까먹는 개념들만 적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화장실 갈 때나 버스에서 간간히 보면서 암기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스터디를 통해 친구들에게 일반 물리 개념을 설명해주고 각자 문제를 풀어서 공유했습니다. 설명할 때 **철관을 많이 활용**했는데 남을 이해시킬 정도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도 할 수 있고, 말도 자꾸 하다 보면 다듬어지니까 교생실습이나 수업실연에서 조금이나마 덜 긴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주로 문제풀이를 한 후 **숙제 검사 스터디**정도만 했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풀이와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며 풀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스터디를 하나까 꼭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물리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풀이 방법을 습득하고 싶다 하는 분께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물리〉

초수는 모든 전공 지식을 갖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은 것들은 뺐습니다. 다행히 시험에는 안 나왔네요. 또한 시험에서 알려줄 것 같은 공식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들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09년도

문제까지 두 번씩 풀었고, 한창민 4단계에 있는 문제집 세 번씩 풀었습니다.

〈물리교육론〉

전남대 물리교육과 재학생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임용 기출문제가 풀렸습니다**. 수업 때 들은 내용이 대부분이라 공부하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육학처럼 질문하는 정도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논술형 문제도 사라지고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안 파셔도 됩니다. 임용 한 달 전부터 교육과정을 암기했습니다. NCIC를 검색하면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박살내기

제가 지원한 지역은 수업실연과 면접만 봤습니다. 수업실연은 일주일에 세 번씩 했습니다. 수업실연 하기에 앞서 교과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실험이 있고, 실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험이 없는 지역이어도 수업 시간 탐색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알고 제시를 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에 있는 탐구 활동이 포함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물리1, 물리2,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 순서로 했습니다. 탐구 활동이 포함된 부분을 다루고 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만 골라서 했습니다. 실제 수업실연 시험지 양식을 구해서 주로 5E와 POE 모형으로 모의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시험을 내주고, 구상시간을 정하고, 실연하고, 피드백하는 식으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윤승현의 '심층 면접'**을 활용했습니다. 범위를 나눈 뒤 그 범위 내에서 각자 문제를 만들어 와서 실제 심층 면접처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이어서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봤습니다. 교육청 시책을 안 봤었는데,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평가원 지역이어도 **교육청 시책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교육청 시책을 녹여서 대답한다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학년부터 각 잡고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좋으니까 이 글을 보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3년 놀다가 4학년 때 하루 8시간 공부하라고 하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원서를 지원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2차 시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자신이 있었지만 2차 시험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차에서 변별력이 낮은 지역을 찾다가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2차 점수가 낮았고 2차에서 변별이 컸던 지역으로 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지역이든 상관이 없다면 그 교육청에선 어떤 평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확실히 2차 시험 종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바빠 보였습니다.

끝맺음도 길어졌습니다. 앞서 말했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합격 수기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탐색하기를 바랍니다. 글 쓰는 데에 재능이 없어서 보기 불편했을 텐데, 긴 글 다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추천 개론서 및 인강

구분	교육학	일반물리	전공물리	물리교육론
개론서		할리데이 일반 물리 서웨이 대학물리학 퍼펙트 물리		새 물리교육학총론
인강	〈전태련 교육학〉	한창민의 ‘직관물리’ 1단계	한창민의 ‘직관물리’ 2·3·4단계	

4년의 마무리, 새로운 시작



모두가 그렇듯 저도 합격을 꿈꿔왔지만 합격수기를 쓰는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다른 합격생들의 수기를 읽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공부 해서 교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합격을 한다는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실력을 갖추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탈락과 합격을 동시에 했습니다. 공립 임용고사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교육청 사립위탁의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공립 교사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저의 수기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지금의 저 역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겪었던 경험이 어느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 면접과 실연을 준비하면서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역사교육과 14학번(역사)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가자~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임용 합격을 위해 모두들 시험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서 휩쓸리지 않고 '합격'이라는 탈출구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다보면 몸도 아프고 머리는 굳어서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성과가 없더라도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끝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면 모두가 **선의의 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나 선후배에게 물어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알려준 사람도 정리를 하면서 지식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쉴 땐 편하게 쉬어야 합니다. 쉬는 날을 따로 정해서 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되 공부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쉬면 뒤쳐진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쉬고 내일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쉬어야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습니다.

4년간의 마라톤

1학년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사가 되면 어떻게 수업을 해볼지’ 미리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서 열리는 진로·취업특강에 참석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볍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동아리나 다른 대외활동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인맥은 임용을 준비할 때나, 교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학년	2학년이 되면 신입생도 챙겨야 하고, 학과 행사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선배배들과의 갈등과 일의 난이도로 인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하는 자세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교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교육봉사활동을 채우셔야 합니다. 3학년과 4학년 때에는 공부하느라 바빠 채울 틈이 없기 때문에 미리 1학년과 2학년 때 교육봉사시간 60 시간을 채워놓는다면 여러분의 졸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3학년	역사교육과는 3학년 때 교생을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임용공부를 시작하면서 교생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교생준비 역시 임용공부 라는 마음을 갖고 기초적인 지식은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도안 쓰는 법을 배우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내 수업을 남들이 평가해주는 한 달이란 시간은 정말 힘들지만 소중한 한 달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공감과 래포를 형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1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2차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산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교생실습 이후	이때부터는 전공 수업이 끝나고 틈틈이 임용과 관련된 자신만의 공부 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수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수업에서는 임용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마 나오겠어?’ 생각하던 그 내용이 임용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용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깊게 나올지 모릅니다. 교수님들의 전공에 대한 식견은 저희의 것에 비해 한없이 넓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이 임용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는 마음으로 전공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많은 학생들이 교육학을 어려워합니다. 국영수 위주의 수업에 익숙한 우리들이 교육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을 접했을 때 머리에 쑥쑥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 과락을 맞을 순 없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교육학 내용의 핵심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학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역사만 해도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교육학까지 외운다면 너무 벅잡니다. **인터넷 강사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교육학 내용을 요약·정리한 책들이 있습니다.** 기본 내용들을 잘 숙지한 채로 구조화된 내용을 반복해서 본다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내용에 살짝만 더하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온다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논술형이지만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두괄식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활용하되 맹신하지 말고 ‘모의고사를 출제한 강사는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학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만의 정도(正道)를 만들자

처음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떤 책을 먼저 봐야할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파악하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자신만의 공부법을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어렵다면 **합격자의 서브노트나 강사의 교재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임용준비를 약간 늦게 시작해서 교육학은 4학년 1학기부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전공은 여름방학부터 합격자의 서브노트를 토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브노트를 통해 공부한 이유는 단기간 내에 많은 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서브노트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초점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전공지식들을 바탕으로 서브노트와 함께 전공책들을 발췌하며 읽으면서 정리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보충**하면 좋습니다.

저는 먼저 졸업한 동기와 **전화스터디**를 했습니다. 전화스터디란 ‘전화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정 시간 동안 말하는’ 스터디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스터디를 위해 따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보충하면 좋을 점들을 얘기해주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 달라고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다지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사료에서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 답은 어떻게 적는 게 좋은지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9월부터 5개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익혀나갔습니다. 틀린 문제들도 오답 정리를 해보고, 어떤 책에 관련내용이 나와 있는지, 내가 출제자라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 문제를 낼지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실력이 정체됐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등산할 때 정상이 보이기 전까지 계속 비탈길만 보여 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래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라도 꾸준히 본다면 늦게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2차시험은 이런 점이 달라요!

사립위탁 합격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건 준비방법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립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잘 몰랐고, 정보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립 및 공립 합격자들과 수업실연과 면접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수업 방식과 면접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했습니다. 여럿이서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받으면서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서 사립학교에 계신 선배님을 연결해주셔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연과 면접을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조건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긴 하지만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받고 지도안을 작성한 후 수업실연을 1차시 분량을 압축해서 10분 내지 20분을 실시하면 됩니다.** 수업실연의 조건은 공립의 것처럼 세세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도안을 30분 작성하고, 20분 정도 수업실연을 실시했습니다. 공립과의 큰 차이점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 지도안이 있다는 점, 2) 한 차시 전체 범위를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현직 선생님들의 지도안을 보면서 지도안 작성법을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범위를 짧게 압축하되, 자신만의 강조점을 잘 살려서 수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를 나눠주는 만큼 지식적인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만능 틀을 만들어 어떤 단원이 나오더라도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시간 단축에 유리할 것입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상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즉답형으로만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하거나 예비교사로서 알아야 할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처럼 면접을 준비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한 다음, 학교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비 질문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학교에 잘 맞는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미소와 함께 학교의 가치관을 잘 녹여낸 대답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활동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강의부분을 유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자!

인생에 있어 기회는 항상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기회가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와 횟수는 다릅니다. **적어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려나... 내년부터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금 해놔야 내년에라도 붙지’ 라는 마음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매일매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도 함께할 것입니다.

수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내 실력을 발휘하고 나오자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면 시험지가 눈에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시험 당일 날은 긴장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칸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시험지에 뭐라도 적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의 무엇인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라면 여러분의 점수는 1점 오르는 것입니다. 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1점은 여러분의 초수 합격을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대학생활 동안 충분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차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해놓으셔야 1차 합격을 했을 때 바로 2차를 준비하면서 면접과 수업실연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교육과 관련된 기사나 정책을 관심 있게 보고, 역사와 관련된 상식들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 번 더 꿈꿔본다면 임용합격에 한 발짝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개론서 및 인강, 도서

구분	교육학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역사교육론
개론서	〈키위교육학〉 그 외 교육학 강사의 책들	1. 동양사개론 2.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3. 서양사개론 4. 서양사강의	5. 한국사통론 6. 뿌리 깊은 한국사샘의 깊은 이야기	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8. 역사교육의 이론
인강	김현의 ‘키위교육학’	김 구의 ‘전공역사’ 이순권의 ‘전공역사’			
추천도서 [교직소양]	-평균의 종말	-중국사상사 (모리 미키사부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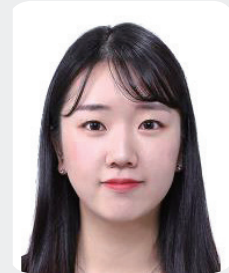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안녕하세요. 전남 사립 위탁으로 능주중학교 영어 과목에 합격한 이푸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합격해서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게끔 많은 도움주신 교수님들, 조교선생님 그리고 많은 도움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능주중학교에 합격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제 자신을 많이 성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을 시작하기 전, 지금까지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수업을 들어왔고 공부를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공부와 임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지원했을 때, 저의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 스스로 성찰을 통해 얻은 저의 부족함과 강점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고려한 공부방법과 마음가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 림
영어교육과 16학번(영어)

자신감이 반이다.

임용은 짧아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한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레이스입니다. 매년 출제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합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N수생 선배님들과 함께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초수에 합격하기 위해 피해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첫 시험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초수생들은 임용을 볼 때, 일단 한 번 봐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공부를 해도 대충하게 되고, 합격에 대한 의지력을 떨어뜨립니다. N수생보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재학생이 귀한 시간에 집중까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두 번째 마음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다보면 어떤 선배는 이렇게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잘한다. 그런데 나는 아는 게 없다. 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비교가 아닌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면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낙담하지 말고, 그 과목이나 내용들을 **월별 그리고 주별 계획표**에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주별, 월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내 앞에 주어진 공부에 집중하면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어려운 임용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내 앞에 주어진 공부에 집중하고, 이번 시험에 내가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다가 불안과 우울이 찾아온다면, 내가 왜 불안한지를 잠시 앉아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러다보면 내 안의 비합리적 신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1학년: 새내기 친구들은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고등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쁜 시기일 것입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교육과의 경우 영교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극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 연극을 해보았던 경험이 나중에 2차 수업실연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2학년: 2학년은 학교에 많이 적응해서 학교생활이 수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교육봉사 활동이나 삼성 드림클래스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시기에 배우는 **전공과목들이 임용의 기초**가 되므로 성실히 수업을 들어주세요.

3학년: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용에 연계되는 과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공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착실히 학습하는 것이 후에 임용을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임용 볼거니까 학점은 상관없어” 라는 생각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용 응시를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시험 3급**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취득**해놓으시면 나중에 임용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사 실력만 믿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생애와 직업탐색**이라는 강의를

수강하면 임용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tip과 지역별 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수강할 수 있으면 들어두세요.

4학년 때 분기별 또는 월별 추천 학습 로드맵

구분	교육학	전공	교과분석 및 수업실연
3학년 겨울방학	• 기본 강의 듣기 • 복습 꾸준히	일반영어(매일 꾸준히) 기본 강의 듣고 이해하기	-
4학년 1학기	• 전공이 급해지더라도 틈틈이 공부할 시간 확보하기 • 서브노트 외우기	• 매일 정해진 양을 학습하기 • 원서 읽기	
4학년 교생실습	•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건 힘듭니다. •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 • 틈날 때마다 정리해놓은 내용 읽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정리
4학년 여름방학	서브노트 만들고 외우기	원서 정리하고 기출 스터디	-
4학년 2학기	기출 분석, 세부 사항 외우기	기출 스터디	
D-100	아직 준비가 안됐을지라도 모의고사 문제 풀기		
1차시험 당일	정리해놓은 내용 읽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기		
1차시험 이후	교육사회학 공부 (교육사회학이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수업 구상	
2차시험 당일	마인드 컨트롤, 내가 최고다!		

교육학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학은 워낙 내용이 많고, 개론서들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몰라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어야 외울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교수님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강사가 아예 배제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경우 답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우려되어 **최대한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알려주는 강사를 선호했습니다.**

제 기준에 맞는 선생님은 이선화 선생님이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이선화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듣고, 과목별로 구조화했습니다.(제 경우 1월에 한국사와 계절학기로 인해 공부를 못해서 2월부터 시작했지만, 1월부터 교육학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6월까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큰 줄기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여러번 반복해서 외우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7~8월에는 **기출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2012년 객관식 기출에서부터 최근까지 기출을 돌려봤습니다. 과거 객관식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번이라도 봐 놓는게 좋습니다.

9~11월까지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짝 스터디**를 하면서 채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의도한 내용을 채점자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명료하게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악필이라면 글씨를 바르게 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다른 여러 초수생들은 전공 공부 때문에 시험보기 한두 달 전까지도 교육학 내용을 많이 숙지하지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이정도면 다 외울 수 있겠다 하는 교재를 선택해서 친구와 짝 스터디를 하며 하루에 몇 페이지씩 외워가서 서로 검사해주면서 그 책을 3,4번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전공의 세계는 깊고도 넓다.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약 3년 정도 전공자로서 공부를 해왔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처음 보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수업을 편식했기 때문입니다.(만약 2,3학년 영어교육과 재학생들이 이 글을 보시고 계신다면, **‘현대 영문법, 고급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영문학과 의 영어학개론’**을 추천 드립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 공부 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일단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배운 내용을 그날그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노트 내용을 외우고 안보고 백지에 적어보았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연필로, 그 이후 노트필기를 한번 보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때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는 빨간 색으로 채우면서 노트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다음에 다시 볼 때, 자신이 어떤 부분을 외우기 힘들어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스터디 활용: 저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원서를 반복해서 읽다보면 읽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맞는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와 짝 스터디를 통해, 읽어가고 함께 다시 읽으면서 이해를 점검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특히 Teacher's grammar 라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 미뤄두었는데, 이 책도 스터디를 하면서, 미리 읽고 문제를 출제해서 가서 예문이 비문인지 정문인지를 확인하는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5~6월에는 기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스터디를 활용했는데, 매주 2, 3회씩 정해진 문제들을 풀어보고 루이스 기출 분석집을 이용해서 관련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서들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기출 분석 단권화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어전공은 몇 년에 한번 씩 기출 주제들이 반복되는 추세가 있어, 이렇게 기출 단권화를 해놓고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9월부터는 모의고사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스터디를 통해 일주일에 2, 3회씩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서 혹은 기출에서 찾아 발췌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풀만큼 자신감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틀리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차라는 높은 산을 넘어보자.

저는 전남지역을 지원했고 1순위는 공립, 2순위는 능주중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목소리나 수업 방식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맞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을 모아 스터디를 함께 조직해주고,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스터디를 구하지 못해 슬퍼하지 마시고, 일단 합격 소식을 과에 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그 학교의 교과서를 구해서 수업실연을 준비**하곤 합니다. 거기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스터디의 경우 일단 공립 2차 수업실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할 경우,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단 한주 동안 매일 만나면서, 최근 5개년의 공립 기출을 이용해 디렉션을 지키면서 수업실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각자 붙은 학교의 시험 시스템에 맞춰 그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실연을 연습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능 틀을 만들어야**합니다. 사립의 특성상 구상시간을 얼마나 줄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구상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업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내용들 간의 연계**입니다. 모든 수업 내용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되어야하며,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업은 채점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스터디 원들은 돌아가면서, 개개인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때, **하루에 한 가지씩 다음날까지 꼭 고쳐오겠다 하는 단점을 선정**하고 그것만이라도 고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현직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피드백을 취사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전문가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다르셔서 피드백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꼭 잘 생각해서 수정해야합니다. 괜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따르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면접의 경우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루이스 2차 준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에 답을 작성하고 달달 외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답을 외우다보면 만능 답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실제 능주중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도 그 답을 이용해서 답변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할 때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스터디원들이 포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너무 깜빡이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습관, 면접관들을 쳐다보지 못하는 습관은 면접관들이 답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므로 없애야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답변을 쌓아가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뭐라도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임용이라는 장기간의 마라톤에 뛰어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긴 레이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몇 개월 만에 끝내기도 하고 평균적으로는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 긴 레이스를 완주하는 방법은 역시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에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계획한 바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 나날들이 쌓여 합격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온 엄청난 실력자인 우리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세요. 그리고 힘이 들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를 포함해 더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에서 여러분을 동료 선생님이로 만날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추천 개론서 및 인터넷 강의

구분	교육학	통사론	영어교육론	음성음운론
개론서	교육학개론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Build up 1,2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인강	이선화 교육학	앤드류 채	박현수	오승태
추천도서 [교직소양]	이선화 교육학	Transformational Grammar	Teaching By Principles	Applied English Phonology

※ 개인적으로 앤드류 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사실 수기를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시험의 당락이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도 수험 생활 때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보며 공부의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기도 하고 때론 연락도 드리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단 한분에게라도 제 이야기나 공부방식이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식은 결코 왕도가 아니며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진 택
윤리교육과 14학번(윤리)

교사임용시험 합격 마음가짐

결코 쉽지 않은 수험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동기부여를 만들길 바랍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아직 진로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값진 투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생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고 제가 아는 지식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예능프로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보고 막연히 퇴근 후 파도 타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진 것이 저의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복학하기 전부터 가진 그 그림을 놓지 않은 것이 지금 저를 제주도 교단에 서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

1학년	교직에 대해 모든 학우들이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했다면 남은 기간에 관심 있는 과목들을 찾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듣기 편한 수업도 좋지만 자신이 관심 있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수업들과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이러한 일선, 교양들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사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유익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박람회 견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고, 이후 수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학년	여름방학때 처음 정치사상 강의를 들으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나 자격증이나 교육봉사 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을 좋습니다. 특히 아직 교육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매 학기 진행되는 탈북학생 멘토링 캠프를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이 시기에 영화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도 만났지만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며 교과와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수업시연을 할 때 풍부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단 영화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나 특기를 가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다채로운 대학생활을 했던 것도 공부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대부분의 학우들이 이 시기에 집행부를 맡게 됩니다. 더불어서 들어야 할 전공과목의 양이 매우 늘어나 과제의 양도 많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때쯤이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학년에 올라가기 전 들어야 할 전공 인터넷 강의가 있다면 모두 수강하길 바랍니다. 책이 쉽게 퍼지지 않는다면 마음 맞는 친구나 선배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때 저는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복싱동아리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까지 맡으며 1년간 배웠는데 신체적 건강보다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해졌던 시기가 됐습니다. 시험기간에도 체력관리 차 운동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하길 권장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겨울 방학에 교육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육학 강사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들어야 할 강의 중 가장 길며 시험 때까지 대부분 그 강사의 교재에만 의존하여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배들에게 추천을 듣고 자신에게 잘 맞는 교재와 강사를 고르길 바랍니다.

4학년

스스로 교생을 하며 임용공부를 한다면 두 마리의 새를 놓칠 것 같아 교생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수업준비도 하고 새로운 교생들과 만나며 한 달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며 공부를 한 것은 8월이었습니다. 아래 **후술할 스터디를 시작하며 기본서와 원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합격수기를 읽으며 일주일에 한번 휴식을 권장하는데 개인적으로 휴식한 후 계속 늘어져 잤은 슬럼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로 휴식 없이 매일 공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몰입이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교육학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교과, 동양, 서양, 정치, 응용 및 통일 순서로 두 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 쓴 **‘몰입’의 방법을 응용**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온종일 방 안에서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따른 공부법의 차이 없이 **회독만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개념서 전체를 1회 읽고 기출 전체를 1회 읽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회독을 하면서 분명히 읽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전엔 몇 달이 걸렸던 내용들이 점점 간격이 짧아지는 데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전공 학습법, 추천하는 학습 습관·태도

1. 회독법

저는 서브노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때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동서양 파트를 만들었으나 이후에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과목도 과감하게 서브 노트를 포기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외우고 단권화하는 작업은 한번 만들면 암기할 양이 압축되며 자신만의 도식을 만드는데 용이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수정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김병찬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 번 읽는 작업**을 했습니다. 빠르게 1회독을 하며 전체적인 틀을 담아두고 그 후 반복적으로 읽으며 머릿속 빈개념들을 메워 나갔습니다. **개념서와 기출문제집을 각각 4회독씩 하며 지루할 때에는 원전이나 2차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어느 것이던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자신과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출문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출 문제를 분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했고 부담감 때문에 미루어두다 시험 전 3달쯤부터 회독을 했습니다. 김병찬의 '16개년 기출문제집'을 통해 문제를 푸다는 느낌보다는 **핵심 개념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 개념서처럼 회독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할 때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큰 효율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보기 전 마지막 날에 위의 기출문제집을 1회독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3. 목차 만들기

전공과목과 교육학 과목의 **큰 단원을 중심으로 소단원까지 목차를 만들어 회독을 하며 계속 옆에 두고 참고**했습니다. 목차를 만들고 읽게 되면 **지식을 구조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은 저자가 그저 임의적으로 단원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큰 개념이나 전제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순자의 첫 중단원인 천관부터 인성론, 정치사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인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기위라는 하나의 개념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론 중 어느 부분에 속해있는지를 안다면 훨씬 기억하기 쉽고 개념의 이해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4. 선후배와 함께하는 스터디

스터디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4학년 여름방학 때 했던 스터디였습니다. 작년에 합격 수기를 썼던 선배의 아이디어를 받아 기획했습니다. 스터디의 방법은 대체로 **후배들에게 제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을 질문 받고, 강사처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되어 여러 가지 원전들을 찾아가며 스터디 시간에 알려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터디원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학자 한명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했고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기에는 정치사상파트밖에 못했지만 그 시간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장기기억화되어 오래 남아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후배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터디이기에 꼭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5. 기타 도움을 받았던 것들

위의 회독법과 목차 만들기와 같은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윤규 변호사의 공부법을 듣고 실행한 것**입니다. 현재 책이나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라면 ‘**얼폼타**’ 어플을 추천합니다. 시험을 한달 쯤 앞두고 알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그 날 집중한 시간이 실시간 전국 순위로 표시가 되어서 공부를 쉬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정을 통해 전국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자극제로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 내용을 공부할 때 활용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등장하는 칙센트미하이의 이론을 설명한 것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책을 읽어도 좋고 유튜브에 올라온 강좌를 한번 가볍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업실연 및 면접 준비

수업시연은 1차 결과와 관계없이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을 만나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재밌고 자유롭게 했지만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1월에 들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실력을 향상하는데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저도 저의 모습을 촬영하고 보는 게 너무 민망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부터 만족시켜야 면접관과 학생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영상을 보는 것이 힘들겠지만 용기 내어서 본 뒤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 자신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는 지도안을 쓰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도안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교생 때 썼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정 사립학교에서는 컴퓨터로 지도안을 작성하기도 하니 여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 밖에 지도안 예시는 다음카페 ‘도덕교사가 되고 싶어요’에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지도안은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대응과 양식, 그리고 지도안에 적혀진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시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알맞게 **학습자 중심으로 발문과 토론을**

구상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나가며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한편으로 막연히 ‘되겠지’라는 자신감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스스로 모자람을 느끼고 이따금 포기를 고민했지만 조금씩 버텨에 결국 운이 따라 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끝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낼 수 있습니다.

추천 개론서 및 인터넷강의

교육학은 해커스의 이지원 강사를 추천합니다. 교육학 논술에 대한 막연함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특유의 암기법이나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는 능력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라면 원전과 같은 책은 비추천합니다.

전공과목의 개론은 전부 김병찬의 강의교재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서적들은 유명한 원전이나 2차 서적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동양은 같은 원전이라도 여러 해설서가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쉽게 풀이된 것도 좋으나 시험을 위해서는 되도록 한자표현을 살린 것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치의 공화주의는 김경희가 짧게 해설해 놓은 책을 읽고, 비롤리의 공화주의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양: 『중국철학사』, 『동양윤리의 담론』,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 『동양철학 에세이』, 『맹자』, 『노자』, 『장자』, 『주자』, 『양명철학』, 『송명성리학』

서양: 『호모 에티쿠스』, 『공리주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윤리형이상학 정초』, 『도덕철학의 이해』

교과: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도덕교육의 이해』, 『도덕교육의 6가지 모형』

정치: 『공화주의』,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사회계약론 연구』

해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배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할지 노트북 앞에 앉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국의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고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합격하는 비결은,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도 정답이 아닌 것처럼 100명의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면 100명 다 제 각기의 방법으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합격생인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 은
음악교육과 15학번(음악)

교사임용시험 합격 마음가짐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졸업예정자로 치뤘던 첫 시험은 커트라인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점수로 떨어져서 아쉬웠지만 또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갖게 해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1년이라는 길고 긴 레이스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용 시험을 준비 한다면 반드시 그 노력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혹여 떨어진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

1학년

1학년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여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전공 수업이 임용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4학년 때는 최대한 임용 시험에 집중하고 싶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24학점을 들으며 많은 학점들을 이수하였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육학과 전공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임용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는 꽤 바쁜 학기였습니다. 4월에는 졸업연주회가 있었고, 5월에는 교생실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1월에는 개론서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악은 '국악개론(김영운)', 서양음악사는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그라우트)',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의 기초(권덕원)'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대표적인 개론서를 정하고 차근차근 읽으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생활 4년을 되돌아보면 1학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음악교육과는 2차에서 실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학년일수록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을 3개 정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실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학년 또는 졸업 후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이론 공부를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실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2차 시험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교육학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학교 교직 수업을 충실히 수강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직 수업 시험 준비를 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노트북을 사용하여 일종의 서브노트처럼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여러 영역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4학년 때 교육학 서브노트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은 이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채워 넣으면서 정리했습니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정리하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했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는 영역인 **‘교육평가/교육행정/교수학습 및 교육공학/교육과정/교육심리’** 영역은 소홀히 하는 내용이 없도록 꼼꼼히 공부했고 그 외 영역도 거의 다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첫 시험 때는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는 통계 부분도 다 공부했었기에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했습니다.

하루 계획을 미션 완수처럼! & 나만의 오답노트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미리 그 다음 날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1시간 단위의 세부적인 범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시간 단위로 세우게 되면 그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종의 미션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분량의 공부를 끝내게 되면 스케줄러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체크 표시가 마치 게임에서 미션을 완수하고 아이템을 얻은 것 같은 성취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학습법은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라고 해서 저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틀리는 개념 또는 악보, 그리고 계속해서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문답식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오답노트가 또 하나의 서브노트가 되어서 공부를 더 수월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별어 - 교수설계모형 : 학습동기화 모형 (ARCS) ☐ 개념 ☐ 구성요소 (주요다지 / 관련특성 / 자성활동 / 안내어공)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8 656 221 754">주의력 (당지)</td><td data-bbox="221 656 654 793">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주의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전략 탐구의 주의행기 ① 학습자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 ② 예 : 문제해결 활동의 구성 장애, 신비감의 제공(신기성) 다양성 전략 ① 교수의 요소들을 변화시킴 ② 예 : 일방적 교수의 상호작용적 교수의 혼합, 교수자료의 변화 추구 지각적 주의행기 ① 감각적인 것과 관련 ② 예 : 시청각 매체 활용, 주의 분산의 자극 차단 </td></tr> <tr> <td data-bbox="178 793 221 911">관련성, 목표성 (인내공)</td><td data-bbox="221 793 654 911"> 학습자의 개인적 삶, 경험, 욕구와 연관시켜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전달성 ① 학습자의 과거 자전과 경험에 새롭고 보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 (사전지식과 경험 활용) ② 예 : 전달할 내용 및 배경지식의 활용 (자신)목표지향성 ① 학습자의 목적달성에 의미 있을 때 동기는 보다 잘 유발 ② 예 : 실용성에 둔 목표제시, 목적의 선택가능성 부여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태도의 부활 ① 학습자가 일과나 동기나 부활되는 수업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 ② 예 : 비공정적 학습상황 선택 가능, 협동적 학습상황, 다양한 수준의 목적 제시 </td></tr> <tr> <td data-bbox="178 911 221 1107">자신감 (성취공)</td><td data-bbox="221 911 654 1107"> 자신감을 높여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성공의 기회제시 ① 성공을 경험하는 기회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가지도록 ② 예 :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과제제시, 적정 수준의 난이도 유지, 다양한 수준의 시작점 제공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① 수업 목표와 동기기준을 제시한다. ②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예 : 수업의 목표와 구조, 평가기준 및 피드백의 제시, 선수학습능력의 판단 ★ 통제권 제시 ① 학생들이 능력에 상응하여, (스스로)학습속도의 조절 가능,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제시, 계열성에 있어서 선택권 부여 </td></tr> <tr> <td data-bbox="178 1107 221 1323">만족감 (내외공)</td><td data-bbox="221 1107 654 1323"> 내재적 강화 (자전적 결과 강조) ①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지시키려는 것 ② 예 : 연습문제를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오의 상황을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외재적 보상 (공정적 결과 강조) ①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 ② 예 : 적절한 강화 체계의 활용, 의미 있는 강화의 강조, 정답을 위한 보상 강조, 피드 보상의 시기 같은 사항, 선택적 보상제 활용 공정성 강조 ① 학습자의 학습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 ② 예 :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연습과 시험내용의 일치, 연습난이도 수준과 시험난이도 수준 일치 </td></tr> </table>	주의력 (당지)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주의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전략 탐구의 주의행기 ① 학습자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 ② 예 : 문제해결 활동의 구성 장애, 신비감의 제공(신기성) 다양성 전략 ① 교수의 요소들을 변화시킴 ② 예 : 일방적 교수의 상호작용적 교수의 혼합, 교수자료의 변화 추구 지각적 주의행기 ① 감각적인 것과 관련 ② 예 : 시청각 매체 활용, 주의 분산의 자극 차단	관련성, 목표성 (인내공)	학습자의 개인적 삶, 경험, 욕구와 연관시켜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전달성 ① 학습자의 과거 자전과 경험에 새롭고 보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 (사전지식과 경험 활용) ② 예 : 전달할 내용 및 배경지식의 활용 (자신)목표지향성 ① 학습자의 목적달성에 의미 있을 때 동기는 보다 잘 유발 ② 예 : 실용성에 둔 목표제시, 목적의 선택가능성 부여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태도의 부활 ① 학습자가 일과나 동기나 부활되는 수업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 ② 예 : 비공정적 학습상황 선택 가능, 협동적 학습상황, 다양한 수준의 목적 제시	자신감 (성취공)	자신감을 높여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성공의 기회제시 ① 성공을 경험하는 기회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가지도록 ② 예 :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과제제시, 적정 수준의 난이도 유지, 다양한 수준의 시작점 제공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① 수업 목표와 동기기준을 제시한다. ②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예 : 수업의 목표와 구조, 평가기준 및 피드백의 제시, 선수학습능력의 판단 ★ 통제권 제시 ① 학생들이 능력에 상응하여, (스스로)학습속도의 조절 가능,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제시, 계열성에 있어서 선택권 부여	만족감 (내외공)	내재적 강화 (자전적 결과 강조) ①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지시키려는 것 ② 예 : 연습문제를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오의 상황을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외재적 보상 (공정적 결과 강조) ①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 ② 예 : 적절한 강화 체계의 활용, 의미 있는 강화의 강조, 정답을 위한 보상 강조, 피드 보상의 시기 같은 사항, 선택적 보상제 활용 공정성 강조 ① 학습자의 학습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 ② 예 :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연습과 시험내용의 일치, 연습난이도 수준과 시험난이도 수준 일치	
주의력 (당지)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주의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전략 탐구의 주의행기 ① 학습자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 ② 예 : 문제해결 활동의 구성 장애, 신비감의 제공(신기성) 다양성 전략 ① 교수의 요소들을 변화시킴 ② 예 : 일방적 교수의 상호작용적 교수의 혼합, 교수자료의 변화 추구 지각적 주의행기 ① 감각적인 것과 관련 ② 예 : 시청각 매체 활용, 주의 분산의 자극 차단								
관련성, 목표성 (인내공)	학습자의 개인적 삶, 경험, 욕구와 연관시켜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전달성 ① 학습자의 과거 자전과 경험에 새롭고 보인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 (사전지식과 경험 활용) ② 예 : 전달할 내용 및 배경지식의 활용 (자신)목표지향성 ① 학습자의 목적달성에 의미 있을 때 동기는 보다 잘 유발 ② 예 : 실용성에 둔 목표제시, 목적의 선택가능성 부여 학습자의 동기나 학습태도의 부활 ① 학습자가 일과나 동기나 부활되는 수업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 ② 예 : 비공정적 학습상황 선택 가능, 협동적 학습상황, 다양한 수준의 목적 제시								
자신감 (성취공)	자신감을 높여 동기를 유발하려는 전략 성공의 기회제시 ① 성공을 경험하는 기회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가지도록 ② 예 :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과제제시, 적정 수준의 난이도 유지, 다양한 수준의 시작점 제공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① 수업 목표와 동기기준을 제시한다. ②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예 : 수업의 목표와 구조, 평가기준 및 피드백의 제시, 선수학습능력의 판단 ★ 통제권 제시 ① 학생들이 능력에 상응하여, (스스로)학습속도의 조절 가능,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제시, 계열성에 있어서 선택권 부여								
만족감 (내외공)	내재적 강화 (자전적 결과 강조) ①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지시키려는 것 ② 예 : 연습문제를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오의 상황을 통한 지능 기회 제공 외재적 보상 (공정적 결과 강조) ①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 ② 예 : 적절한 강화 체계의 활용, 의미 있는 강화의 강조, 정답을 위한 보상 강조, 피드 보상의 시기 같은 사항, 선택적 보상제 활용 공정성 강조 ① 학습자의 학습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 ② 예 :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연습과 시험내용의 일치, 연습난이도 수준과 시험난이도 수준 일치								
학교 교직 수업을 수강할 때 교육학 영역별로 개념을 미리 정리해둘 것	오답노트를 통해 어려운 개념 이해하기								

수업실연 및 면접 준비

수업실연과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강의를 따로 듣지 않고 최대한 새롭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업실연과 면접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배움으로 다가왔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실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업실연을 준비할 때 교과서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보통 교과서가 ‘가창 / 감상 / 기악 / 창작’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각 영역을 가르칠 때 어떤 점에 유의하여 가르칠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뻔하지 않는 가창 수업, 뻔하지 않는 감상 수업, 뻔하지 않는 기악 수업, 뻔하지 않는 창작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창 수업을 준비할 때는 나만의 호흡법, 발성법 등을 생각해보았고, 감상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할 수 있는 감상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기악 수업에서는 악기들의 연주법을 정확하게 제 스스로 공부하고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연습했고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악기의 관리법도 정확히 공부했습니다.

수업실연 연습을 할 때 **다양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자 했고, 많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예상 반응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문성이 드러나는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사 혼자서만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은 더 이상 학교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연습했었습니다.

또한 저만의 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론 수업이 나올 경우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가르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아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상

1. 다문화 2. 전통악 3. 전통악 4. 전통악

○ 배경

- 제헌악: 고려 고종 때부터

○ 음악적 특징

1. 다문화 (이제까지)

2. 전통악 (이제까지)

3. 전통악 (이제까지)

4. 전통악 (이제까지)

5. 전통악 (이제까지)

6. 전통악 (이제까지)

7. 전통악 (이제까지)

8. 전통악 (이제까지)

9. 전통악 (이제까지)

10. 전통악 (이제까지)

11. 전통악 (이제까지)

12. 전통악 (이제까지)

13. 전통악 (이제까지)

14. 전통악 (이제까지)

15. 전통악 (이제까지)

16. 전통악 (이제까지)

17. 전통악 (이제까지)

18. 전통악 (이제까지)

19. 전통악 (이제까지)

20. 전통악 (이제까지)

21. 전통악 (이제까지)

22. 전통악 (이제까지)

23. 전통악 (이제까지)

24. 전통악 (이제까지)

25. 전통악 (이제까지)

26. 전통악 (이제까지)

27. 전통악 (이제까지)

28. 전통악 (이제까지)

29. 전통악 (이제까지)

30. 전통악 (이제까지)

31. 전통악 (이제까지)

32. 전통악 (이제까지)

33. 전통악 (이제까지)

34. 전통악 (이제까지)

35. 전통악 (이제까지)

36. 전통악 (이제까지)

37. 전통악 (이제까지)

38. 전통악 (이제까지)

39. 전통악 (이제까지)

40. 전통악 (이제까지)

41. 전통악 (이제까지)

42. 전통악 (이제까지)

43. 전통악 (이제까지)

44. 전통악 (이제까지)

45. 전통악 (이제까지)

46. 전통악 (이제까지)

47. 전통악 (이제까지)

48. 전통악 (이제까지)

49. 전통악 (이제까지)

50. 전통악 (이제까지)

51. 전통악 (이제까지)

52. 전통악 (이제까지)

53. 전통악 (이제까지)

54. 전통악 (이제까지)

55. 전통악 (이제까지)

56. 전통악 (이제까지)

57. 전통악 (이제까지)

58. 전통악 (이제까지)

59. 전통악 (이제까지)

60. 전통악 (이제까지)

61. 전통악 (이제까지)

62. 전통악 (이제까지)

63. 전통악 (이제까지)

64. 전통악 (이제까지)

65. 전통악 (이제까지)

66. 전통악 (이제까지)

67. 전통악 (이제까지)

68. 전통악 (이제까지)

69. 전통악 (이제까지)

70. 전통악 (이제까지)

71. 전통악 (이제까지)

72. 전통악 (이제까지)

73. 전통악 (이제까지)

74. 전통악 (이제까지)

75. 전통악 (이제까지)

76. 전통악 (이제까지)

77. 전통악 (이제까지)

78. 전통악 (이제까지)

79. 전통악 (이제까지)

80. 전통악 (이제까지)

81. 전통악 (이제까지)

82. 전통악 (이제까지)

83. 전통악 (이제까지)

84. 전통악 (이제까지)

85. 전통악 (이제까지)

86. 전통악 (이제까지)

87. 전통악 (이제까지)

88. 전통악 (이제까지)

89. 전통악 (이제까지)

90. 전통악 (이제까지)

91. 전통악 (이제까지)

92. 전통악 (이제까지)

93. 전통악 (이제까지)

94. 전통악 (이제까지)

95. 전통악 (이제까지)

96. 전통악 (이제까지)

97. 전통악 (이제까지)

98. 전통악 (이제까지)

99. 전통악 (이제까지)

100. 전통악 (이제까지)

형식

1. 다문화 2. 전통악 3. 전통악 4. 전통악

○ 배경

- 제헌악: 고려 고종 때부터

○ 음악적 특징

1. 다문화 (이제까지)

2. 전통악 (이제까지)

3. 전통악 (이제까지)

4. 전통악 (이제까지)

5. 전통악 (이제까지)

6. 전통악 (이제까지)

7. 전통악 (이제까지)

8. 전통악 (이제까지)

9. 전통악 (이제까지)

10. 전통악 (이제까지)

11. 전통악 (이제까지)

12. 전통악 (이제까지)

13. 전통악 (이제까지)

14. 전통악 (이제까지)

15. 전통악 (이제까지)

16. 전통악 (이제까지)

17. 전통악 (이제까지)

18. 전통악 (이제까지)

19. 전통악 (이제까지)

20. 전통악 (이제까지)

21. 전통악 (이제까지)

22. 전통악 (이제까지)

23. 전통악 (이제까지)

24. 전통악 (이제까지)

25. 전통악 (이제까지)

26. 전통악 (이제까지)

27. 전통악 (이제까지)

28. 전통악 (이제까지)

29. 전통악 (이제까지)

30. 전통악 (이제까지)

31. 전통악 (이제까지)

32. 전통악 (이제까지)

33. 전통악 (이제까지)

34. 전통악 (이제까지)

35. 전통악 (이제까지)

36. 전통악 (이제까지)

37. 전통악 (이제까지)

38. 전통악 (이제까지)

39. 전통악 (이제까지)

40. 전통악 (이제까지)

41. 전통악 (이제까지)

42. 전통악 (이제까지)

43. 전통악 (이제까지)

44. 전통악 (이제까지)

45. 전통악 (이제까지)

46. 전통악 (이제까지)

47. 전통악 (이제까지)

48. 전통악 (이제까지)

49. 전통악 (이제까지)

50. 전통악 (이제까지)

51. 전통악 (이제까지)

52. 전통악 (이제까지)

53. 전통악 (이제까지)

54. 전통악 (이제까지)

55. 전통악 (이제까지)

56. 전통악 (이제까지)

57. 전통악 (이제까지)

58. 전통악 (이제까지)

59. 전통악 (이제까지)

60. 전통악 (이제까지)

61. 전통악 (이제까지)

62. 전통악 (이제까지)

63. 전통악 (이제까지)

64. 전통악 (이제까지)

65. 전통악 (이제까지)

66. 전통악 (이제까지)

67. 전통악 (이제까지)

68. 전통악 (이제까지)

69. 전통악 (이제까지)

70. 전통악 (이제까지)

71. 전통악 (이제까지)

72. 전통악 (이제까지)

73. 전통악 (이제까지)

74. 전통악 (이제까지)

75. 전통악 (이제까지)

76. 전통악 (이제까지)

77. 전통악 (이제까지)

78. 전통악 (이제까지)

79. 전통악 (이제까지)

80. 전통악 (이제까지)

81. 전통악 (이제까지)

82. 전통악 (이제까지)

83. 전통악 (이제까지)

84. 전통악 (이제까지)

85. 전통악 (이제까지)

86. 전통악 (이제까지)

87. 전통악 (이제까지)

88. 전통악 (이제까지)

89. 전통악 (이제까지)

90. 전통악 (이제까지)

91. 전통악 (이제까지)

92. 전통악 (이제까지)

93. 전통악 (이제까지)

94. 전통악 (이제까지)

95. 전통악 (이제까지)

96. 전통악 (이제까지)

97. 전통악 (이제까지)

98. 전통악 (이제까지)

99. 전통악 (이제까지)

100. 전통악 (이제까지)

이론수업실연을 대비한 노트 제작

면접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교재는 ‘면접레시피’, ‘수상한 면접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 시민교육 / 교육혁신 / 학생 인권과 교권 / 학교와 안전 / 수업문제상황 / 학교와 시설 / 교육 트렌드 / 교사’ 등 11개의 챕터 아래 다양한 소주제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른 다양한 예상 문제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실 속 갈등상황 백문백일답’이라는 책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슬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 제시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읽다보니 저만의 대처방법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론서와 친해지기

저는 혼자서 공부할 때 **개론서를 최대한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가 참고하여 공부했던 개론서들을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을 모두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2권 이상을 참고**한다면 한 개론서에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개론서를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든 개론서에서 찾아서 비교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개론서와 가까이 하기보다 **비교적 저학년 때 많은 개론서를 보며** 공부한다면 이해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악	국악총론(장사훈), 국악통론(서한범), 국악개론(김영운), 한국음악통사(송방송)
서양음악사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그라우트), 두길 서양음악사(홍정수),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허영한), 서양음악사(민은기)
음악교육론	음악교육의 기초(권덕원), 음악교육학 총론(민경훈)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합격 선배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자극을 받고 올바른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교사가 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떠한 슬럼프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서적인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나의 힘든 점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길고 긴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Q. 선배들의 서브노트 받는 게 좋을까요?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선배가 만든 서브노트를 참고해서 자신이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서브노트로 공부하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정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브노트에 대한 애정도 없고, 또 선배 역시 수험생이기 때문에 잘못 정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부딪혀보고 수정해보고 추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더 잘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교육과 15학번 **주다은**(음악)

저는 받는 것을 추천해요. 하지만 그것만 봐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참고용으로 받는 것은 추천합니다.

- 특수교육학부 16학번 **이서정**(초등특수)

Q.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내용이 어려운 것은 방법을 쉽게 했습니다. 정독을 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속독을 하며 1회독을 했다는 자신감을 만들었고 가볍게 여러 번 보면서 빈개념들을 매꾸어 나갔습니다.

- 윤리교육과 14학번 **임진택**(윤리)

저는 일단 제 손으로 필기를 해야 외워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단권화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적고, 그 적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영어교육과 16학번 **이푸름**(영어)





Q. 임용스터디의 이점과 추천하고 싶은 스터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차 시험 준비에는 스터디는 선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초수생이다 보니 아직 흐름도 모르고 의지도 약할 때라 동기 1명과 같이 짝스터디를 했습니다. 짝 스터디이자 전화스터디였는데 간단히 전화만으로도 내용 점검이 가능하고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으로 정해워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월, 수, 금 정해두고 전화스터디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만들 수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 가정교육과 16학번 **강주경**(가정)

스터디는 꼭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스터디는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성실하게 할 사람을 찾으세요. 초반에 맞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스터디 방법은 전공 공부를 할 때는 이런저런 방법 부담 갖지 말고 각자 공부해온 파트 체크하는 스터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터디에서 무언가 많은 걸 얻어가려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스터디도 잘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 분석을 할 때는 각자 문제를 풀어온 방법을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또한 스터디 마무리 후 꼭 복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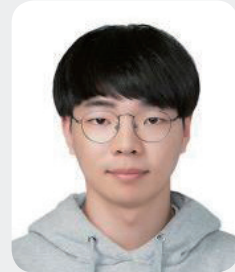
- 지구과학교육과 13학번 **김홍균**(지구과학)



기출 경향을 잘 체크하라



안녕하세요. 제가 합격수기를 써도 되는 사람인지 참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결국엔 합격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후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소수점 차이로 탈락한 후, 그 다음 해 기간제 교사를 1학기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공부를 할 생각이었지만, 고등학교에서 2개 학년을 맡아 수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1학기 중에는 거의 공부에 손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1학기 종료 후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결코 공부에 손을 놓지 말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수기는 주로 추천 드리는 공부 방법 위주로 적겠습니다. 임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 홍 균
지구과학교육과 13학번
(지구과학)

지구과학 임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임용 시험이라는 점에 한정해서 지구과학은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인터넷 강의로도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자료도 그 사람만의 서브노트 개념이지 정직하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직접 전공서를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격자들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말도 안 되는 범위의 양을 공부했던지 임용시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해, 어느 지역에도 **합격 가능한 점수는 주로 70점대입니다.**(60점대에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넘칩니다.) **합격자들도 최소 5,6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는 잃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과학 임용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 고난이도로 나오는 천문, 대기역학 문제나 기본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질 문제에 너무 고민하기보다 누구나 열심히만 한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교육학, 과교론, 지구물리’ 과목 문제와 ‘지구과학 1,2 개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부 문제, 그리고 누구나 공부하는 범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에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고득점 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

구분	교육학	전공	교과분석 및 수업실연
3학년 겨울방학	교육학 인강 시작	천문, 대기 기본서 공부	지구과학 1,2 교과서 분석
4학년 1학기	교육학 인강 마무리 후 암기 시작	스터디 • 전공 1회독하며 기본 개념 익히기 • 기출도 1회독 하기	
4학년 교생실습	교육학 개념 꾸준히 암기	만든 서브노트를 조금씩 보며 꾸준히 개념잡기	
4학년 여름방학	교육학 모의고사 풀이 개념 암기하기	서브노트 및 전공 개념 확실히 암기	
4학년 2학기	교육학 모의고사 풀이 개념 암기하기	서브노트 및 전공 개념 확실히 암기	
D-100	교육학 모의고사 실전처럼 풀기	전공 중 주요개념 위주 암기	
1차시험 이후			• 지구과학 1,2 교과서 분석 • 수업실연, 면접 스터디

지구과학 임용의 기본 범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누구나 공부하는 범위’를 적어보겠습니다. 매해 출제되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시험 범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내용은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1. 교육학

먼저 교육학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책에 친구가

공부하는 책의 내용까지 더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방법** 이 다섯 과목은 특별히 더 자세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학교육론은 전 범위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과학교육론은 인터넷 강의도 많고 조회형 ‘저 과학교육론’이라는 책과 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책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론은 최근 2차 지도안 작성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을 주고 그 평가 기준을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2차 준비를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분석을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전공

천문학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서 4~7챕터를 제외한 모든 범위를 봐야하는데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집착하지 말고 **기출을 중심으로** 이해해야할 정도를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출을 중심으로 좌표계 및 시간에 대한 내용(관측천문학이란 책이 있는데 저는 기출중심으로 정리해서 특별히 보진 않았습니다), 우주론 내용 정리(지2와 우주로의 여행으로 기초를 다지고 천천서 챕터25,26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은 기본천문학이라는 참고 도서도 있습니다.

대기는 대기과학개론 1~11장, 대기역학 1~5장, 일반기상학 전체, 여기에 기상분석과 일기예보 일부(3장 정도까진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정도가 기본이고 여기에 가능하다면 대기환경과학책으로 기본을 다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양학은 ‘하이탑 지1, 2’와 물리해양학인데, 물리해양학은 기출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용 보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 해양학이 대기역학 수준의 어려운 운동방정식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출제된 내용은 물리 해양학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구물리학은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책’ 전체를 기출 중심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문제의 **지질**인데 지질은 먼저 지구과학개론을 꼭 봐야합니다. 정말 많은 기출이 여기서 출제되었고, 예상하기 힘든 기입형 문제들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석학과 그 외 나머지 지질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암석학에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확실히 **화성암석학, 퇴적암석학, 변성암석학** 이 세 책입니다. 기본은 여기 있지만 이 책에서도 보통 앞에서 3, 4챕터 정도만 보고 다른 책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죠.

암석학개론을 기본서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물학은 전체 다 보시고 나머지는 기출을 중심으로 골라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질학은 특히 그림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퇴적암 보충 도서로는 퇴적지질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듣기로는 대학원 수준까지도 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림과 극히 일부 내용만 골라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광물학은 광물의 이해(안건상 저) 혹은 광물과학 책을 기출을 중심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지질학**입니다. 판구조론, 지표의 변화, 화석과 지질시대(층서학),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한국지질, 지질도)와 같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이 분야들은 각각 다른 책을 봐야합니다. 먼저 지표의 변화 분야는 생동하는 지구라는 책을 중심으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생동하는 지구는 교양수준의 지질학 전공서인데, 암석학의 기본을 다지기에도 좋고 지표의 변화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그림이 이 책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판구조론은 암개론, 지질학(이용일 저 분홍색 책), 생동하는 지구, 지구과학개론 어느 책에 나온 내용도 좋지만 생동하는 지구나 지구과학개론에 잘 나와있습니다. 화석과 지질시대(층서학) 내용은 보통은 하이탑 지 2나 지구과학개론의 내용으로도 충분하지만 부족하다면 퇴적지질학 후반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한국지질은 특별히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이탑 지2에 나와 있는 한국지질 내용으로 기본을 잡고 나머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질학(이용일 저)과 지구과학개론, 대학 시절 교수님 수업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질도는 지질도학(이창진 저)이라는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걸 추천합니다. 책도 비싸고 하루 정도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질도 하이탑 지1,2 내용을 정리한 후 기출을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에 기출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마 누구나 공부하는 지구과학 임용의 범위일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나 말고도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100점을 맞기보다는 남들도 다 맞출 수 있는 **80점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출 분석을 말한 것은 2014~2020에 **딱 한 번 정도만 출제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서** 분석하여 각 년도에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남들도 다 틀릴만한 문제인지 잘 구분하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공부법

저는 앉아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공부할 때 남들은 10시간을 앉아서 집중하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떨어질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저는 힘들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가능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읽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컴퓨터로 직접 정리하면서 타이핑 치며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고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찾으면서 물화생지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에 답해보기도 하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출 경향을 잘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1차 중심으로 기출 된 영역과 2020 문제를 예상한 목록과 실제 출제 목록을 비교한 것을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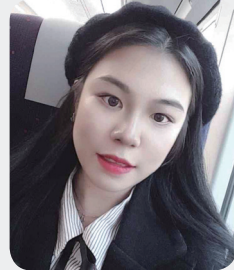
2020	천문(제만효과, 거리계산, 회합 주기 및 케플러 제3법칙 복합 계산, 우주론), 대기(폭풍해일로 인한 정역학 방정식 문제, 온도풍, 마이크로버스트, 복사평형), 해양(파랑, 에크만 수송), 지표의 변화(광상),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한국지질 층서 암기 및 화석 암기), 광물(간섭색 및 QAP 삼각도), 지구물리(지진파로 두께 구하기, 부계 중력 이상), 변성암(변성상 및 구체적인 변성 광물), 교과론(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상세, STS수업 모형 및 기초탐구과정, 오개념, STAD, 로슨의 순환학습모형, 개념도 및 유의미 학습, 고원의 V도)
2019	천문(도플러 효과 계산, 허블상수 및 색초과 이용한 은하 거리 계산, 주연감광, 펄서 수명 계산-펄서 수소선 관측 이유), 대기 및 지구환경(일 평균 일사량 그래프, 역학 제트류 제트 입구출구 비지균형 계산, 역학 잠재와도 보존), 해양 (대양 심층·표층 순환, 염분 단위, 역학 운동방정식-ITCZ위치), 판구조론과 지각변동(x), 지표의 변화(x) 화석과 지질시대(생흔화석-화석의 생성조건),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단층(못 찾겠는 내용), 한국지질 퇴적분지 생성기작-신동, 하양, 유천 분류, 습곡-선주향), 지구물리(자기이상·중력이상 그래프), 광물(x), 화성암(3성분계 상평형도), 퇴적암(조식 성숙도), 변성암(x), 교과론(과학교육과정 핵심역량, 발견학습모형-귀납적 방법의 한계, 기초탐구과정-평가기준 제시,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하슈웨 인지 갈등 모형, 오리온의 야외 학습 이론-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2018	천문(좌표계와 시간 계산, 쌍성계 그래프, 색초과·색지수 계산, H-R도-산개·구상성단-항성진화), 대기 및 지구환경(안개-포화수증기압, 리차드슨 수, 온실기체, 운열-단열선도 해석, 역학 각운동량 보존), 해양(해파 분류, 와동-상대·절대와도), 판구조론과 지각변동(x), 지표의 변화(지하수 포화대), 화석과 지질시대(x),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지질도 해석), 지구물리(중력이상 계산), 광물(x), 화성암(2성분계), 퇴적암(하천 퇴적환경), 변성암(접촉변성암 AFM도), 과교론(과학교육과정 과학과 핵심역량-통합과학 성취기준,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기초탐구기능-평가기준, 비교초기-고등지구과학, 독립변인·종속변인-피아제-통합탐구기능, 5E모형-오수벨의 유의미학습이론-고등지구과학-평가수렴적질문)
2017	천문(태양풍, H-R도 해석-주계열성, 은하회전곡선 계산, 행성탐사), 대기 및 지구환경(온도풍 평형-적도상공 온도 낮은 이유, 온대 저기압 발생, 하층제트-단열선도 해석), 해양(대양경계류, 일조부등, 엘니뇨·라니냐), 판구조론과 지각변동(지각 열류량-판구조론), 지표의 변화(하수 공극률-수리전도도), 화석과 지질시대(x),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한국지질 화석명칭-우리나라 지체구조, 한국지질 층서 암기), 지구물리(주시곡선 계산), 광물(x), 화성암(화산암 QAP삼각도), 퇴적암(점이층리), 변성암(x), 과교론(과학교육과정 목표, 평가 기준, 순환학습-피아제-고원의 Vee도, 직소모형-과학의 본성, STS수업모형-평가방안 제시)
2016	천문(시간 좌표계 계산, 도플러 효과 계산, 전달방정식, 세이퍼트은하-적색이동·허블법칙 이용한 은하 거리계산), 대기 및 지구환경(일기도-역전층, 단열선도 해석, 경압불안정파), 해양(표층해류, 엘니뇨·라니냐, 에크만 수송), 판구조론과 지각변동(판구조론 변환단층), 지표의 변화(x), 화석과 지질시대(층서대비), 우리나라의 지질과 지질조사(한국지질 층서 및 화석 암기, 지질도-단층해석), 지구물리(x), 광물(복굴절률-면지수), 화성암(x), 퇴적암(x), 변성암(광물일수도)누대구조 광물 화학식), 과교론(과학 추론 방법(귀납, 연역, 귀추 등), 피아제-비고츠키, 채점표-실험보고서 해석, 오수벨의 유의미학습이론, 포스너의 개념변화조건, 과학 지식 발달(과학철학전반)-항성 진화)

초수합격, 이루어 '지리'



저는 수많은 합격자 중 한 명일 뿐이고 공부 기간이 짧아 경험도 적고, 이렇다 할 큰 공부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야기를 절대적인 왕도라 생각하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상 은
지리교육과 16학번(지리)

시기별 (1차 시험 전/1차 시험 이후) 마음가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당해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후반으로 갈수록,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시험이 임박하니 마음이 약해져 '이번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만약 내년에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해도 지금 열심히 안 하면 그때 또 초수인거나 마찬가지로 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 마지막 시험 종료령 울리기 전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노력을 불태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2차 시험날 사이에는 약 3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선(컷라인)보다 6점이 높았지만, 제가 응시한 지역은 3명밖에 뽑지 않고, 광역시 특수성 상 2차 시험에 강한 수험자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 스터디와 학원 등의 강행군을 견뎌내야 했기에 체력적만으로는 쉽게 지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0.5점 더 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 합격하길 바라니까 해주는 말'로 여기면서 고쳐갔던 것들이 모여서 2차 시험 고득점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학년별 권장 사항

1학년: 교육봉사, 학원알바 등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과 부딪쳐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가르치는 일이 좋다는 점만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교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4학년 교생실습에서 뒤늦게 깨닫기 전에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학년: 학과 커리큘럼에 있는 전필 및 전선 과목의 대부분은 임용시험 과목에 해당합니다. **학교수업을 통해 깊이 있게 공부한 부분은 나중에 임고 공부를 할 때 큰 밑거름이 됩니다.**

3학년: 전공 인강과 개론서를 이용하여 임용시험 전 범위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매일 강의 들은 후 그 개념과 관련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이론이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되는지 확인하고, 인강 책과 개론서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교육학 또한 2003~2013학년도까지 출제된 객관식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교육학 개념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공부와 병행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강사가 만들어놓은 교육학 객관식 문제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분기별 공부내용

구분	교육학	전공
2학년 겨울방학	인강 듣고 복습 하며 교육학 전 범위 공부	인강과 개론서 발췌독 통해 전 범위 공부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객관식 기출문제의 선지 분석하며 교육학 개념 익히기	기출문제 분석, 인강 교재, 개론서 통해 전 범위 공부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1학기	교육학 복습	주요 개론서 빈칸 스터디, 기출 반복 풀기
4학년 교생실습	윤승현 '매메세' 풀기	빈칸 스터디문제 복습
4학년 여름방학	서브노트 만들기	기출+개론서+모의고사 단권화
4학년 2학기	서술형 답안 정리, 매일 모의고사 풀이	전 범위 구조도 만들기

교육학 공부법

교육학은 워낙 강사마다 개성이 뚜렷해서 수험생 개인의 학습양식에 맞는 강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커리큘럼'이라고 불리는 교육학 기본개념 강좌를 2번(2학년 겨울방학, 3학년 2학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2학기에 학교수업으로 교직과목을 들을 때, 해당 과목의 객관식 기출선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학 과목은 방학을 이용하여 2003~2013학년도까지 기출된 모든 객관식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교육학 시험이 '논술'로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을 들여 객관식 문제를 공부했던 이유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대한 교육학을 공부 하다보면 금방 잊어버리기에 십상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다시 초면입니다. 교육학 인출 스터디 때 금기어가 '뭉더라?'였을 정도였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교육학 내용을 초반부터 백지복습을 해보려하면 너무도 막막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한번 해보기 쉽습니다.** 또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금방 금방 몇 개의 단원에 걸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 기출을 반복하여 풀면서 교육학 전체 회독**을 했고, 이것이 이론을 익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학 내용이 익숙해지니 내용이 주어졌을 때, 옳은 것 또는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것에는 능해졌지만, 어떤 이론을 설명해보라 하면 몇 개의 단어들만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4학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나의 말로 정리된' 교육학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9~10월에는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전체 이론을 서술형 답안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와 교육학 모의고사를 교환하며 시험 전날까지 매일 1회씩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때 매일 실전처럼 바로 답을 보지 않고 끙끙대며 문제를 풀었던 것이 난해했던 20학년도 교육학시험에서 19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법

저는 욕심이 많아서 임용시험과 학점관리 둘 모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할 **학교 공부를, 최대한 임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전필과 전선 과목은 임용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ppt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일 때도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교재, 부교재 개론서를 학교 공부할 때 같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저학년일 때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북소년 카페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를 종종 읽었습니다.**

각자의 공부 방법이 천차만별이었지만 **개론서를 소홀히 한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로만 알다가, 실제로 임용시험을 준비해보니 개론서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인강 강사의 요약집도 개론서의 핵심 내용을 추려놓은 것이니 결국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줄거리 몇 줄을 읽는 것과 실제로 2시간 동안 전체 영화를 봤을 때 이해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개론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간되고, 개정되는 모든 책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개 내외의 필수 개론서만큼은** 반드시 정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전공 인강을 들었을 때는 아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1시간 강의를 들으면 3시간의 복습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여러 개론서도 뒤적이며 읽어보고, 해당 개념 기출문제도 풀어본 것이 큰 이해도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기본개념 인강이 끝난 후에는 **심화개념 강의를 들으며 개론서와 기출공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개론서가 많은 ‘지형학, 기후학, 경제지리, 도시지리’ 등은 스터디원들과 각자 한 권씩 맡아서 **빈칸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수업 쉬는 시간, 점심 먹고 잠시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 등에는 강사가 만든 기출문제집을 몇 장씩 찢어서 화일에 가지고 다니면서 풀었습니다. 3~4학년 1학기에 거쳐서 기출 4회독 가량을 하였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에는 본격적으로 기출분석**을 하였습니다. A4 한 장에 한 문제만 붙이고 관련 개론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와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17~19 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두 오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 스터디를 통해 실전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때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또한 기출문제 단권화 책에 붙여 개론서 내용과 기출문제, 그리고 모고 문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 한 달 동안은 키워드 구조도를 만들었고 시험장에는 구조도 노트만 가지고 갔습니다.

2차 시험 대비 방법

지역마다 2차 시험 준비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도안을 보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도 평가원 출제지역이 있고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이 2차 시험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응시한 지역은 지도안을 보고, 평가원 면접 지역이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배점은 지도안 15점, 수업실연 45점, 면접40점이었습니다. 저는 1차 발표부터 2차 시험 전까지 매일 수업실연&지도안, 면접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수업실연&지도안 스터디에서는 각자 문제를 내온 것을 돌려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밴드에 올려 서로 지도안을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스터디원들이 모두 2차 경험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수인 저에게 문장 하나, 발문 하나 피드백 해주신 덕분에 15점 만점에 14.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목은 같지만 서로 응시지역이 달라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강점을 녹여내는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아닌 **수업실연&지도안 스터디는 멤버들끼리 서로 지역이 겹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업실연은 스터디원들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혼자 녹화영상을 돌려보면서 판서, 발문 양식, 시선 처리 등을 수정한** 덕분에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연을 해본 단원이 출제된다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의 수업을 유심히 보면서 **좋은 비유와 발문 같은 것은 적어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2차시험에 인구이동 단원이 출제되었는데, 스터디할 때 한 선생님이 이사 경험을 통해 동기유발을 했던 것이 기억나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실제로 해본 ‘카드분류 활동’이 출제되어 수월하게 시연을 진행하였고 45점 만점에 44.03점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 지역마다 가장 상이한 부분이 면접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체 출제 지역은 면접이 어렵고, 평가원 출제지역은 평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평가원 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책을 까다롭게 외워야 할 필요가 없어서 **‘면접레시피’라는 책을 통해** 기본내용을 가볍게 숙지한 후에 스터디를 통해 매일 실전연습을 하였습니다.

각자 문제를 만들어오고 10분 구상, 10분 면접을 하며 서로의 답안, 태도, 시간 배분 등을 피드백 했습니다. 면접 스터디원끼리는 과목이 모두 달라서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공유하였습니다. 평가원 출제지역이어서 큰 내용 공부 없이도 38.2점을 받았지만, 자체출제를 하는 서울, 강원, 경기 등의 지역에 응시한다면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망각’이었습니다. 정말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했던 내용을 잊을까, 마치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화분에 물을 줬본 적 있나요? 내가 붓는 그대로 다 빠져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싹을 틔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험공부도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좌절은 좌절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그리고 잘 견뎌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공 필수 개론서

과목	개론서
지형학	권혁재 지형학, 맥나이트 자연지리학, 핵심지형학(그림만)
기후학	맥나이트 자연지리학, 이승호 기후학
경제지리	이희연 경제지리학, 현대 경제지리학강의
도시지리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인문지리학의 시선, 인문지리학 개론, 도시의 이해
문화지리	세계문화지리, 인문지리학의 시선
인구지리	인문지리학의 시선
지역지리	2009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
지도학 GIS	이희연 지도학
지교론	조철기 지리교육학, 핵심 지리교육학
기타	수능특강 세계지리, 한국지리, 3개년 평가원 고3 문제집

스트레이트를 고민하는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도 광주광역시 체육교사 임용에 합격하게 된 조승우입니다. 사실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운 좋게 초수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 글이 건방으로 느껴질까 걱정이 됩니다. 다만 체육교육과 대표로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고 글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경험 위주로 열심히 작성해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승 우
체육교육과 16학번(체육)

마음가짐

사실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학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군 입대를 미루고 임용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티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주변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신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 자신이 '군대는 언제든 갈 수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스트레이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글 말미에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 입대를 미룬 상황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부터 한 번에 붙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지내왔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런 생각은 **수험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지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 또한 4학년 수험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버리고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동기로 작용 될 수도 있지만 초조함,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4학년이 되고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 중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난 무조건 이번에 합격해야 해!' 와 같은 마음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잘 가고 있을 때도 자신을 다그치게 될 것이고 슬럼프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자체가 촉박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압박은 조금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학년 기준에서 1년이라는 수험생활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하루 잘하고 하루 집중 못하는 것보다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는 쉬면서 쌓인 스트레스 풀어주고 멘탈 관리하면서 공부하세요!!!

학년별 활동

1학년	학년 별로 추천하는 활동을 적는 부분인데, 사실 1학년 때는 학과 생활 열심히 하고 동기, 선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우들의 경우 대부분 군대에 갈 것이기 때문에(저도 가야하네요) 대학생활 충분히 즐기시고 후회가 남지 않게 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학년	의욕이 높은 선생님들은 2학년이 되면서 임용에 대해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저도 넘치는 의욕으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열심히 놀아라, 너무 빠르다.’ 이런 대답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했는데, 수험생활을 겪어보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용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학년 시기에 시작한 공부는 대부분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학년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교육학 강의를 들어보았고 당시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3학년 때까지 이어지지 못해서인지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4학년 시기까지 이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치지 않을 자신감과 마음가짐을 가진 후 시작하는 공부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강비 아껴둘거예요. 2학년 때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교직, 학과 공부와 교육봉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	3학년이 되면서는 조금 더 임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 같은 경우 임용에서 많이 다뤄지는 역학, 생리학 과목 열심히 공부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해놓고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수월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싶다면 여름방학 시기에 함께 들을 스터디원을 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강의를 듣고 서로 공부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교육학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해보고 수험생활에 들어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3학년 때는 4학년 시기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수해야 할 내용들이나 자격증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교육봉사 시간이나 한국사 자격증, 교직이수 학점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수험생활에 부담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결해놓으시면 좋을거예요.

4학년

이제 **4학년** 시기인데... 저는 2019년 1월1일에 일출을 보고 1월2일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 김현 강사님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초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계하고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듣다보니 1~2월 기본강의만 듣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에 교육학을 한 바퀴 돌리고 3~4월 다시 한바퀴, 그리고 교생이 끼어있는 5~7월에는 기출분석을 하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하는 커리큘럼이었고, 강의를 듣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모의고사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1~2월 강의만 듣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린 것도 이 커리큘럼을 따르면 **인강을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공부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앉아서 공부만 하기 힘들어서 인강을 들으면서 조금 환기 시킨다는 마음으로 기출분석 때까지 인강을 들었습니다.

전공 또한 이재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고 1월 역학, 2월 생리학, 3월 체측평, 교생기간 동안은 거의 공부하지 못해서 6월 즈음에 스교1,2까지 끝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운동제어 및 스포츠심리, 체육사, 스포츠윤리 과목까지 해서 인강을 다 들었을 때가 9월쯤 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 공부는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했고, 과목별 모의고사도 풀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9월부터는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풀이, 암기에 집중해서 공부 했습니다. **10월부터는 토요일마다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험과 같은 시간, 분위기를 형성해서 교육학과 전공 모의시험을 진행**하여서 거의 매번 참여하고 연습했습니다. 제가 공부 한 순서였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

사실 올해 교육학 문제를 풀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문제 유형 자체도 기존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 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문제는 처음 보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1교시 교육학 시험을 보고 '올해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주절주절 다 끝 마쳐 쓴 점, 채점이 조금 유하게 들어간 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말은 **나올 것 같은 내용, 안 나올 것 같은 내용 모두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제가 유력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공부하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라도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나 단어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문제 지문을 활용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공부 같은 경우 동기들과 인강을 같이 듣기는 했지만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정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노트를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정리된 책이 더 나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만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자 하여서 책에 하는 필기와 밑줄 긋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육학도 키워드 채점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인강을 들으면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강사님이 강조한 내용을 빨간 펜을 이용해 밑줄 그었고 후에 혼자 복습하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파란색 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냈습니다. 다시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 또 다른 색의 펜으로 밑줄을 그어서 내용을 추가했고, 실제로 복습할 때 밑줄 위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킹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목차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는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제목 수준의 목차를 머릿속에 정리한다면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져서 암기하고 인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올해 기출된 정착수업을 예로 들면 정착수업이 어떤 과목의 어느 소단원의 내용인가를 떠올렸을 때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 파트의 교수학습이론, 그 중 구성주의 교수이론의 한 종류이다'라는 정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암기한 그 파트의 키워드들을 인출해내기 용이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린 책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목차를 활용하면 파트의 교육학적 느낌이나 용어, 맥락이 그려지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서 문제를 글로 풀어내고 부분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공

1년 전공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암기해야 하는가 선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하고 공부해보면서 분별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 출제될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불안감이 따르겠지만 전공 같은 경우 다루는 과목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많다 보니 결국에는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 먼저 이해할 내용과 암기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도 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교육학에서도 활용한 방법이지만 전공의 경우, 특히 인문파트는 목차수준의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답이거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추천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통으로 외우고 그 안의

내용들을 인출해보는 방식으로 암기하고 공부한 것을 확인해보곤 했습니다! 이재문 강사님의 책이 원서 위주로 정리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책을 기반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나가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스터디원들과 공부 범위를 정해놓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놓친 내용을 얻어갈 수도 있고, 공부한 내용의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출제예상 주제, 문제 유형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스터디 방법도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점점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기!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면접이나 수업시연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의 변별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매년 1차 시험 합격자의 유형이나 실기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실기 변별이 크지 않다고 알려진 광주지역에서도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면 점수에서 크게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도 1차점수가 컷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실기에서 비교적 고득점을 받아 최종에서는 커트보다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컷 점수라고 해도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실기종목 중 약한 종목은 공부와 병행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특히 수영은 실기 종목 중 변별이 크기도 하고 실력이 빠르게 향상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실기 평가 기준이나 배점 등을 알아보고 **자신과 잘 맞는 실기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나 수업시연의 경우 1차시험을 준비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1차시험이 끝난 후에 처음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위에서 실기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지만 **면접이나 수업시연에서도 점수 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은 광주, 전남 등 공통된 문제로 진행되는 평가원지역과 경기, 서울, 강원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 암기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평가원 지역은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답변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해져 있는 답변 보다는 딜레마 상황이나 자신의 교직원, 교육관 등을 묻는 형식입니다. 준비를 할 때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급하게 쓰게 되어 글이 정리가 안되네요. 제 글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혹시 **스트레이트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를 한다는 것이 단점이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군대를 남겨뒀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불안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동기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고 보고 싶기도 했고, 같이 학교생활을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합격한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시험에 불지 못했을 경우**를 많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면 언제까지 시험을 볼 것인지, 군대는 몇 년이나 연기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에 불편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참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정 보다는 결과로 평가 받고 **정말 열심히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험일까?’ 하며 의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방향성에 대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끝은 **항상 ‘공부하자’**였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황자체도 특수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체도 걱정이 많고 시험에 대한 불안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되는 불안을 잘 컨트롤 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합격에 대한 생각은 미뤄두고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글에 제가 공부한 방법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다 다르고 정답도 없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추천

공부를 하면서 따로 원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선택한 강사의 책과 자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구한 추가적인 자료로만 공부했습니다. 초수였기 때문에 소화할 자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 자신에게 맞는 강의, 강사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제가 경험한 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은 김현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준비를 잘못된 탓도 있겠지만 1차 시험보고

나와서 집 가는 길에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현 강사님의 강의나 모의고사 문제는 **사고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1차원적인 암기와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보기 전에는 유형이 다른 타 강사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걱정은 했지만 지난 시험들의 형식을 봤을 때 괜찮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제의 유형이 준비해왔던 **기존 유형과 달라서 많이 당황하고 대처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경험임을 알아주시고 저의 준비가 부족했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은 이채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강의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지만 임용공부 자체가 강사의 도움을 조금 받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이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사의 강의 능력보다 **출제경향을 잘 파악하고 내용을 구분해주는 능력, 모의고사 출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이채문 강사님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도 원서를 기반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불안감이 적었고 정리도 잘되어있어서 목차를 활용하여 공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합격의 왕도? 나에 대한 성찰



저는 1차시험88점(교육학19+전공69), 2차시험97.4점으로 총점185.4점으로 광주 합격했습니다. 초수이고 N수생 보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짧은 공부기간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할게요. 하지만 이 방법이 꼭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 정 호
화학교육과 14학번(화학)

교사임용시험 합격 마음가짐

첫째,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직원, 교사상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와 학교를 정한 것처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긴 임용고시 수험생활을 버티게 해주고 나중에 2차 면접을 볼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 가지지 말자.** 우리는 초수생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어딜 가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임용관련 카페나, 주변 N수생들을 보며 ‘저 사람은 저거 푸는데 난 지금 이것밖에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지...’와 같은 불안감을 갖는 건 자신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험 직전까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셋째,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좋아하는 일 만큼은 잃지 말자**, 남에게 숨기고 연막 치고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배워서 남 주자’하는 생각으로 살자** 등과 같은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장차 만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자신을 끝까지 성장시켜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훨씬 행복한 과정과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학년별)

구분	교육학	전공	교과분석 및 수업실연
3학년 겨울방학	개념 이해	개념 이해, 기출풀이	과학교육론 개념 이해
4학년 1학기	개념 심화		
4학년 교생실습	키워드 빈칸 채워 넣기		
4학년 여름방학	키워드 한 번씩 글로 적어보기	개념 복습 심화, 문제풀이	과학 교육론 기출 풀이
4학년 2학기		다시 개념복습, 문제풀이	
D-100	교육학 모의고사 매일 풀기	개념 복습, 암기, 모의고사 풀이	모의고사 풀이, 복습
1차시험 당일			
1차시험 이후			교과서 분석, 수업시연 스터디
2차시험 당일			

교육학

첫째, 교육학 개념 내 것으로 만들기

교육학은 논술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교육학 논술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채점 시에도 키워드와 올바른 설명이 채점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의 키워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시험문제였던 정착수업을 예로 들면, 동영상 매체, 실생활 관련 주제 활용, 학생 참여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글쓰기 연습

개념을 설명하는 연습이 끝났다면, 전체적인 글의 짜임새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글의 논리적인 흐름과 더불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글을 적을 때 **전체적인 개요를 적고 서론, 본론, 결론을 적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론에는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이나 필요성 등을 적고 내가 논술할 답안의 큰 흐름을 간단히 적어주었습니다. 본론에선 각각의 답을 적고 마지막에 소결론처럼 내가 적은 개념을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해 한 줄 정도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론에선 본론에 적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전체적인 주제와의 연결성, 앞으로 교사로서 노력해야 할 점이나, 시사점을 적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5점이나 되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 벗어나지 않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학습법

1. 공부 방향:

화학이라는 과목은 암기과목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문제 풀이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공식암기 기술, 풀이 암기는 지양합니다.

2. 전공 학습 습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누구의 자료를 참고하든 간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태도와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강의와 자료에도 틀린 내용은 조금씩 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앳킨스, 미즐러, 해리스 같은 교수들이 쓴 이론서에도 틀린 설명이 간혹 존재합니다. 정답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책도 없기에 오로지 자신이 비판적으로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나 정답으로 향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와 전공 서적에서 생기는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공부를 하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전공서, 기출풀이:

저는 전공서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강 강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인강을 듣고 복습을 꼭 전공서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시험은 기출과 전공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공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출풀이는 무조건 여러번 풀어봐야 하는데, 처음 기출을 풀다 막힐 때 무조건 답부터 찾아보기 보단 전공서의 개념을 찾아 읽어보고 공부하여 고민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수업실연 및 면접 준비

수업시연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교과서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모든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은 분석하며 수업시연을 통해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오개념, 수업모형, 실험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수업 만능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업 구상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업시연 시 매우 긴장되어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작 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유의사항 설명하기**와 같이 특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어서 과학과 같은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실연 문제가 최근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학생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틀을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현직교사의 도움을 받기**. 주변에 선배들이나 교생 때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들에게 꼭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리 스터디원끼리 수업시연을 해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피드백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눈 한번 딱 감고 부탁해서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여러 부분에서 저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지만 사실 공부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자신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지는 선생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하루의 공부 시간, 계획 짜는 방법, 노트 정리 방법, 스터디 방법과 같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어떤 영역을 잘 하고 못 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것들까지, **스스로를 잘 파악하기 위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광야의 축복’



예비 합격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앞둔 2020 유아 임용 합격생입니다. 지금은 발령을 앞두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공부법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기에 저 또한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배님들의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



송 다 은
유아교육과 16학번(유치원)

간절함

공부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잡혀있지 않으면 공부를 하다가도 ‘왜 공부를 해야 하지?’라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합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꼭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함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빨리 끝나고 놀기 위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본인의 간절함을 끌어낼 수 있다면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위야(不爲也) 비불능야(非不能也)**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기에, 간절함만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_❀❀)❀❀

차근차근

매 학년의 방학에 **계절 학기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2학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더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세요. 동아리에도 들어가 보고,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하고, 대외활동도 하며 신입생 생활을 즐겁게 보내세요. 임용 공부를 할 때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2학년: 졸업과 임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교육봉사활동, 졸업을 위해 꼭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 한국사시험 등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학년: 4학년 때 온전히 임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한국사시험은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3학년 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 만큼의 노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 그리고 임용에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4학년: 제가 한 월별 공부법과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12월	인강 강사님을 선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느낌이 통하는 분을 선택하세요. 이후에는 돌아보지 말고 선택한 강사님을 믿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을 추천해요.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요!) 이 밖에도 1월이 되면 이런, 저런 고민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서 합격 수기를 찾아보는 등 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데 시간을 보냈답니다.
1 ~ 2월	개론공부 를 시작했어요. 1월에는 보육 실습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해주세요. 공부를 위해 체력도 소중하답니다. 저는 1월에 밀린 강의는 보육 실습을 하지 않았던 언니와 짝스터디 를 하며 보완했어요. 진도를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사님의 커리만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간다면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3 ~ 4월	각론(신·의·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 과목별 공부 방법이 달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체운동건강은 비교적 양이 많지 않아, 책을 여러 번 정독했어요.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는 암기량이 많아 직접 만든 청킹 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입과 눈에 익도록 매일 암기 했어요. 이때부터 외운 청킹은 장기 기억이 된답니다.
5월	실습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습을 성실히 한다면 2차 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시간이 된다면 안전 공부를 끝내는 것을 추천해요.)
6월	5월의 밀린 공부를 했어요. 각론(예·자), 교육과정, 안전, 고시문과 기출 분석 도 이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부터 공부량을 대폭 늘렸어요. 학교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했고, 아침 8시 30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밥을 먹거나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시문부터 노트북으로 암기했어요. (노트북을 활용하면 시간이 단축돼요!) 안전은 주로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봤고, 가족들에게 직접 퀴즈를 내며 암기했습니다.
7월	해지서와 논술 을 시작했어요. 저는 논술을 늦게 시작한 편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는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공부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 본 것입니다. 확인문제와 기출은 적어도 3번 이상 꼭 풀었고, 틀린 문제도 시간에 걸쳐 맞을 때까지 풀었습니다. 저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했어요.

8월	법을 시작했어요. 독톡2와 제법이군을 활용했습니다. 두 책 모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엔 일주일에 최대한 모든 과목을 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는 고시문 2영역, 논술or 해지서, 안전, 오후에는 개론 1과목(암기, 문풀), 저녁에는 각론 1과목(암기, 문풀)or 교육과정(암기, 문풀), 법을 공부했답니다.
9월	문제 풀이와 모의고사 시기예요. 이때는 기본서는 거의 보지 않았고 웹지도나 요약본으로 암기를 했고 무엇보다 문제를 제일 많이 풀었어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실전처럼 답안지에 기록하는 것까지 시간을 재며 풀었어요. 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직장생들의 점수와 비교하며 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동기부여를 했지만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인 영역은 어디인지, 왜 실수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해요.
10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1번씩 총 5주~7주 분량이 나와요.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점수가 상향하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왔던 것을 또 틀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 처음 틀렸을 때부터 자신이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확실히 분석해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출 분석 을 했어요. 6월부터 꾸준히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년도별로 분석을 했어요. 본래의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며 분석해보세요.
11월	요약본과 풀었던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서 봤어요. 아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는 강사님께서 새로운 것을 올려주신다면 시간이 부족해도 무조건 다 봤어요. 실제로 이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었답니다.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다면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알던 것만 알고 가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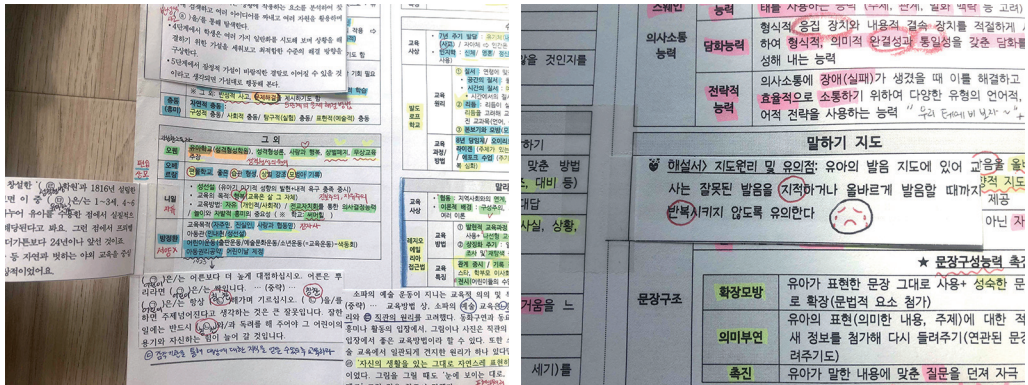
저는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수강생의 기출 답안**을 자주 읽었어요. 거기에는 수강생의 실제 점수도 적혀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을 비교**할 수 있었고, **평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글을 쓰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갔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논술을 쓸 때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논술 문제 밑에 나온 점수 배점을 보면 점수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답안이 몇 가지인지 알 수 있어요. 서론과 결론의 경우 점수 배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능 틀을 만들어 두고** 주제에 따라 조금씩 바꾸어 쓰는 등 시간을 아끼셨으면 해요.(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 논하겠다. / 이처럼 ~ 한다면 ~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나만의 글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찾아 쓰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우리는 **채점관이 채점하기 쉽도록 그대로 옮겨 적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요약**해야 해요. 내 언어로 너무 바꾸다 보면 수많은 답안을 채점하는 채점관님께서 우리들의 답을 미처 정답으로 채점 못 하실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논술은 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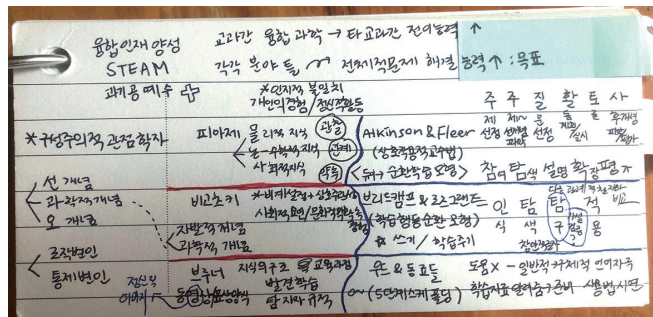
답을 쓰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๑•ㅂ•)ᄇ

효과적인 공부방법

1. 단권화: 저는 강사님이 주신 요약본을 활용했어요. 요약본을 여러 장 출력해 수정테이프로 가려서 암기했고, 문제를 풀다가 틀렸거나 좋은 지문을 오려 붙였어요. 문제의 지문은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빨간 색연필로 요약본에 체크 해두었고, 해지서 내용도 필요하면 붙였답니다.



2. 초초초 간단 요약수첩: 저는 노트 정리를 싫어하지만 암기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적은 수첩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청킹만 적는 등 매우 간추린 것으로 예를 들어 신체운동건강을 4쪽에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3. 오답노트: 틀린 문제는 따로 공책에 붙여 다시 맞을 때까지 풀었고 보시다시피 글씨는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저 푸는데 의의를 두었어요.

수업 실연과 면접

유치원 임용 카페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께서 만능틀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하여 활용했습니다. 2차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공부가 필요해요. 저는 **모든 수업 유형의 순서를 청킹으로** 외웠어요. 도입과 마무리는 대부분 비슷해서 따로 암기하지 않았고 전개 부분만 예를 들자면 동극의 경우, ‘소역약연소평다 = 소품 만들기-역할 정하기-약속 정하기-연습하기-(각자의 역할) 소개 후 연극 하기-평가하기-다시 하기’ 이렇게 외워두면 중간에 필요한 요소를 빼먹을 확률이 적고 구상시간도 줄일 수 있답니다. (●□●) 또한 **저는 제 자신의 수업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업 영상들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져서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평가원의 경우, 면접은 나오는 주제가 비슷해요. 그 큰 주제 안에서는 답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예상문제들의 답을 적어보고 입으로 많이 말해보세요. 시험장에서 당황해도 주제만 파악한다면 문제의 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연습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진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4월 이후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육과정, 논술, 수업 실연, 면접 모두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봤던 글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ㄷ’✿

광야의 축복

풍요로움과 정반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광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광야의 길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온 것들을 참고 포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망하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져 이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 깊은 곳의 힘들을 나누기 어려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하기 싫은 한 가지를 해낸 나의 모습, 다시는 책을 펼치기도 싫을 것 같은 어제와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아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원지 모를 따뜻함을 전해주는 서로 간의 눈빛과 같은 작은 사건들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의 시간동안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한 저의 학생이 되어 준 선생님들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축복은 풍요로움 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같은 힘든 공부의 과정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믿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참아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갈 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힘을 내 주세요. **〈민정선〉**

예비 특수교사를 위한 합격수기



사범대학을 들어오기 위해 누구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아픈 날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저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험생활도 나중에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용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 정
특수교육학부 16학번(초등특수)

초수합격을 위한 Mind Control

① 나는 반드시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다.

초수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후반부로 갈수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더욱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올해만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자기관리도 소홀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시험을 끝으로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②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학교현장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이 구절을 떠올린다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매 순간을 보낸다면 합격은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③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잘못된 긍정회로**가 작동합니다. 자신이 정해둔 쉬는 날이 아니지만 놓고 나서 '**나는 운이 좋으니까 잘되겠지**'라는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운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바탕으로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시험 준비를 하고 그 외에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만을 하늘에 맡긴 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학년 별 준비과정

1학년: 1학년 때는 사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한 전공과목보다 교양과목의 수업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교사로서 기초 교양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부에서는 이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의 세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처럼 초등특수에 관심이 많다면 악기들을 배워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카리나를 배워서 음악수업과 학급 특색활동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2학년: 2학년 때 부터는 **전공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높게 지을 때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높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용시험 준비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쌓아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2학년 때 한 공부방법이 '읽기'였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전공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용어에 익숙해지자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의 총론」을 책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용어들이 입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3학년: 3학년 때는 **전공영역에 대한 심층이해**를 해야 합니다. 임용시험 1차에서는 암기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3학년 수업을 통해 깊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4학년이 되어서 자세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영역 중 장애영역 별로 **각론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다루는 장애영역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따로 서브노트처럼 만들어 둔 후 암기한다면 4학년 때 시간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때 분기별 추천 학습 로드맵

구분	전공	교과분석 및 수업실연
3학년 겨울방학	특수교육학 기본이론 강의듣기	
4학년 1학기	기본이론 서브노트 정리+암기, 교직논술 톨 정리하기, 일반초등 기본이론 강의	
4학년 교생실습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적용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방안의 효과를 기록
4학년 여름방학	기출분석(특수/일반초등), 점자·수화·지화 암기	
4학년 2학기	심화각론 정리, 최신 경향 파악	
D-100	기본이론+최신 경향 반복암기	
1차시험 당일	기본이론 내용 점검	
1차시험 이후	2차 그룹스터디 준비, 1주일 푹 쉬기	과목별 지도서 정리, 선배교사에게 수업실연 피드백
2차시험 당일	학생 문제행동 지도방안 점검하기, 특수교육 용어 점검	머릿속으로 수업실연 정리하기, 표정관리

교육과정 총론 공부 방법

총론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빈칸 채우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암기**한 후 시간이 지나면 키워드만 보고도 총론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 암기해야 합니다. 꾸준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수교육학 학습 방법

초등특수교육 전공의 경우 일반 초등과정을 추가로 공부해야 합니다. 새롭게 접하는 내용도 많고 기존의 특수교육학을 암기하는 것도 초반에는 벅차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것은**

특수교육학만을 제작하거나, 특수교육 서브노트를 먼저 제작한 후 일반 초등을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일반 초등과정에 암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작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고 정해진 암기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 하였습니다.

특수교육학은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기본이론을 점검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각론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정리하는 **기출변형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공부속도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외우는 것 보단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스터디를 활용하여 말로 꺼내 보거나 **해시태그를 활용**했습니다. SNS에서 자주 활용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쓰고 내가 어디까지 암기가 되어있나 계속 점검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지에 '#정서행동장애정의' 라고 쓰고 법적정의와 DSM-5에서 제시한 정의를 쪽 쓰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꾸준한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2차를 위한 준비 방법

1. 심층면접:

구상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만의 서론 틀을 만들어 두세요. 교직 논술 틀을 약간 변형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 태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이려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답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며 말하는 습관을 체크 해보세요. 또한 **면접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녹여 답변**하면 더욱 고득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2. 수업실연:

먼저 문제행동과 교과별로 연습 문항을 만들어 스터디 사람들과 점검한 후 **교수님과 학교 선배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세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나만의 수업형식을 만들어 가면 어떤 과목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준비는 하루도 쉬지 말고 준비하세요. 목 관리도 필수입니다.

앞으로 꽃길을 함께 걸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분명 있을 것 입니다.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혼자 울기도 했지만 저 지금 합격해서 합격수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나도 저 선배처럼 내년에 합격해야지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올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작년 합격수기를 보며 내년에는 내가 써야지 했는데 그 기회가 정말 저에게 왔네요! 아직은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분명 제 글을 읽고 작년의 저처럼 꿈을 갖는 사람이 있겠죠?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잘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꼭 학교 현장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접 활용한 인터넷 강의와 개론서

구분	교직 논술	특수교육	일반초등	비고
개론서		청각장애아교육(고은), 의사소통장애아 교육(고은), 자폐성 장애학생 교육(방명애), 정서 및 행동장애(이성봉),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박순희),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김애화), 지체장애 학생 교육(박은혜), 특수교육평가(이승희)		
인강		패스워드(김0구), 끈내 주는 기본이론(서0)	초등기본 이론, 각론 (백0팀)	
추천도서 [교직소양]	30일 완성 교직논술 날라차기			
기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학년별 활동 간단 추천

큰 흐름 잡는 교육학 공부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내는 전공 공부

응시지역에 맞는 2차준비



이 민 주

특수교육과 16학번(중등특수)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기 위해서 계절학교를 매우 추천합니다. 저는 교육봉사를 이미 채웠음에도 **방학에 시간을 내서 특수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보며 자신이 되고 싶은 교사상을 경험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년별 활동 간단 추천

구분	교육학	전공	교과분석 및 수업실연	비고
3학년 겨울방학	기본이론 인강	기본이론 인강	x	
4학년 1학기	기본이론 인강	기출분석	x	
4학년 교생실습	주1회 스터디	x	o	
4학년 여름방학	영역 3회독	기출분석	x	
4학년 2학기	영역별 모고	기출분석+모고	x	

D-100	중요 영역 암기, 답안 작성 연습	기출개념암기, 답안 작성 연습	x	
1차시험 당일	모고 인출카드 갖고가기	간단한 마인드맵 갖고 가기	x	자신감!
1차시험 이후	일주일 휴식 후 2차스터디		o	
2차시험 당일			o	자신감!

※ 자신의 1년 연간계획표를 상세히 작성하여 자신의 공부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기출10번돌린다고 생각하기)	교육학 (구조화, 인출하기)	점자/교육과정/장특법 (1시간): 기출표시, 인출
1월	기본이론 3회정독+ 서브노트완성 +기출문제	기본이론1회 정독 + 기본이론 자료로 구조화하기 구조화+ 도식화	스터디 꾸준히 참여하기 점자, 교육과정(총론)
2월	기본이론 구조화하기 기출문장 정리하기(서브에 답 /문장정리) [스터디; 진도+인출]		장특법: 아침 기상 전화스터디 (최대 15분 정도)
3월	〈인강: 기출분석강의 듣기〉 기출 풀기 +분석하기	〈복습하기〉 2회독 인출하기; 도식화 만들기(목차) 기출 분석하기 마인드 맵 개념 인출하기	교육과정: 총론+공통 빈칸
4월	기출 된 개념을 모든 개념 정리 기출문장 정리+ 기출 된 각론보기(심화)		장특법 7일에 한번 돌리기
5월 (교생)			
6월	기출인강 끝내기 벤티 서브로 단권화하기	중요 개념 통문장으로 암기하기 (5-6월) 기출강의 끝내기: 누적공부하기 • 스터디: 핵심쟁점 200제 • 모의고사 1주일에 하나 시작 (영역별)	점자 밴드 스터디 (5일마다 돌아가면서 문제내기)
7월			
8월	특학 비중 높이기; 8시간/ 통문장으로 본격적 암기 (부족영역채우기) • 특학 인출 시작하기 1주일에 한 영역 암기하기	개요작성하기 3일에 한 과목씩 인출하기 • 안외워지는 것 인출카드 만들기	〈 통문장으로 암기 〉 총론+공통+기본국어,사회, 진직 넓게보기 ;40분 암기+20분 인출

9월	특학 비중 높이기; 8시간/통문장으로 본격적 암기 (부족영역채우기) • 특학 목차 인출 • 이론서 복습, 내용정리 + 각론과 기출 다시보기 • 영역별 기출분석, 답안의 방향 알아가기 (각론근거) 〈기출+강사이론서+각론자료+문풀해설+모고해설〉	개요작성하기, 종합모의고사 풀기 3일에 2과목씩 인출하기	장특법; 5일에 한번 돌리기 점자 매일
10월	무한 암기/백지 인출 → 실수 없애기 기출풀기, 모의고사 풀기, 모든 내용 복습 무조건 키워드 인출하기	인출하기 모의고사 풀기	〈 통문장으로 암기 〉 총론+공동+기본국어,공동 (국영체) :40분 암기+20분 인출
11월	11월: 연도별 기출/ 관련 개념 인출 d-28~14; 09~17유초중 기출 d-14; 4일에 전과목 인출 d-3; 마인드맵 d-1: 전과목 인출		장특법; 3일에 한번 돌리기 점자 매일

큰 흐름을 잡는 교육학 공부

교육학은 상반기에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학은 중요개념 인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주1회 다른 교과 분들과 영역별 인출스터디를 통해서 3~5월: 영역별 2 회독, 6월: 영역별 기출교재를 토대로 키워드 인출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영역별 모고시준이예요. 초수분들은 영역별 모고를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 글쓰는 방법을 익히고, 영역별로 자신이 소홀했던 개념인출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종합 모의고사가 매주 3회 정도 올라오는데 저는 주 2회 초고+1회는 실제시험지를 사서 시험지에 시험처럼 풀었습니다. 실제시험은 60분이라 저는 50분을 잡고 풀었어요. 모고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 맞춰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암기한 것이 정확히 인출 되느냐도 중요. 문제 풀고 바로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8월쯤부터 모고에서 정말 안 외워지는 중요 개념들을 **암기카드**를 만들어서 매일 암기했습니다. 또 이때쯤 전공에만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교육학을 듣는 선생님을 구해서 밤10시쯤 3-40분정도 **전화스터디**를 통해서 매일 조금씩 암기한 것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출이 안돼서 상대방선생님과 함께 서로 암기 팁을 공유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교육학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내는 전공 공부

공부 시작은 3학년 여름방학부터 기본이론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진짜 공부 습관만 만들자고 생각하여 조금씩 인강 듣고 여유롭게 복습하며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격적으로 3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아침 7시 장특법+총론읽기 기상 전화스터디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는 법과 교육과정(총론)은 놓치면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 내내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6월까지지는 정말 그냥 읽는 스터디로 시작하여 7월부터는 빈칸을 채워서 읽고 9월부터는 모든 문장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론(1-2월): 전공 인강을 들은 후 매주 오프라인으로 마인드맵인출로 짝스터디를 했습니다. 같은 인강을 듣고 인출하였기 때문에 개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강 진도도 밀리지 않고 혼자 공부했을 때 모르는 점은 같이 물어보며 큰 틀(마인드맵)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듣는 인강 강사분은 기본이론강의 때부터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암기와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처음 기본이론부터 가볍게라도 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분석강의(3-7월): 기출분석과 각론을 듣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초수라서 모든 각론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영역별 기출분석을 통해서 개념이 반복되는 흐름이나 기출된 개념의 주변부분까지 깊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듣고 영역별 1주일에 1회독씩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7월에는 영역별로 하루 1회씩 다시 풀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범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동아리에 참가하여 동기와 함께 스터디를 운영했고 모든 스터디원들이 빠지지 않고 계획대로 운영하여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풀이 시즌(8-9월)에 동기와 함께 인출스터디를 했습니다. 영역별로 기출개념에서 확장된 내용이 나왔어서 인강을 듣지않고 동기와 문제를 구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인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 개념, 이전 출제 개념을 추가해서 서로 암기했습니다.

모의고사 시즌(10-11월): 모의고사 강의는 듣지않고 강사에게 답안 첨삭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내가 서술한 답안이 채점관에게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정답채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여 초수인 저에게는 첨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첨삭만 받고 모의고사문제는 인출용으로 생각하여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자신이 외운 개념을 각론근거로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고 시즌에서도 기출문제는 놓치 않고 확장개념까지 인출하고 확인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맛있는 것도 먹고 낮잠도 잤습니다.** 물론 공부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마음 편한 날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실 텐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고 또한 자신을 믿으셔야 공부의 능률도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발령받게 될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시지역에 맞는 2차 시험 준비

1. 1차 발표 이전

저는 1차 시험을 마친 후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동안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스터디원은 재학생이 아니라 기간제 경험, 2차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시험이 변별이 없을 거라 생각된 저희 스터디원은 2차 시험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12월동안 일주일 4회, 수업실연과 면접을 함께 해서 5-6시간 정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우선 역대 복기된 기출문항으로 수업실연을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기출문항은 하루에 2개년씩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짚어준 과목별 주제를 중심으로 중핵교육과정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수업실연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2명씩 돌아가며 진행하여 다른 사람들의 수업구상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1차 발표이후

저는 대구지역에 응시하였습니다.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 수업실연 25분, 심층면접이 20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응시지역에 맞는 스터디원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1차 발표 이후에는 대구응시한 분들과 함께 2차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수업실연을 할 때에는 내용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더욱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수업 실연할 때는 구상지를 들고 하지 않고 외워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상지를 보고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흐름이 끊기면 오히려 본인이 당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층면접에서는 대구는 **인문소양**이라는 자체출제 문항이 있어 다른 교과로 이루어진 면접

스터디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인문소양에 나오는 책을 읽고 문제를 만들어오고, 대구시에서 중요시하는 시책을 인문소양 책의 내용과 연관시켜 의견을 나눴습니다. 2차 시험까지 심층면접만 7회 계획 하였습니다. 면접은 모범답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모두 변화시키려고 하면 2주안에 바뀌기 힘듭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피드백 중에 공통적으로 받는 것, 내가 면접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하게 되어서 실전에서도 긴장을 많이 안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암기에 대한 두려움, 인출이 되지 않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텐데 자신을 끝까지 믿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나는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 1차, 2차 준비를 하면서 많은 선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혹여나 도움이나 조언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격선배들에게 물어봐요!



Q. 시험장에서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학 시간에 정말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멘탈은 흔들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럴싸한 내용들로 적었습니다. 근데 물채점이어서 점수 잘 받았어요. 뭐라도 쓰면 다 맞게 해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쓰면 점수 조금이나마 받지 않을까요?

- 물리교육과 16학번 **엄영준**(물리)

임용시험은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뭘 묻는지 모호한 문제들은 문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론의 핵심키워드를 어떻게든 문장으로 꾸며서 썼습니다.

- 지리교육과 16학번 **조상은**(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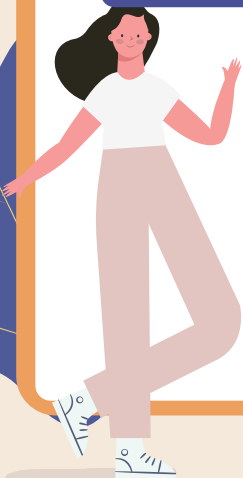
처음엔 비워두고 넘어가지만, 답안지를 제출할 땐 무조건 뭐라도 적고 내셔야 해요.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 처음엔 생각이 나지 않다가 마지막에 답이 떠오른 문제가 많았어요. 시험장에 가면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떠올리려고 문제를 잡고 있다면 다른 문제를 풀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될 거예요.

- 유아교육과 16학번 **송다은**(유아)

Q. 평소 시간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간 관리는 일주일 단위로 하여 하루마다 어떤 과목을 어느 분량 정도 공부할지 계획해 두었습니다. 시간은 주로 오전에 교육학 3시간, 오후 전공1~2개(또는 교육학 강의) 3~4시간, 저녁 전공1~2개 또는 전공강의 4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중간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기도 했고 거의 지키는 못했는데 시간의 양도 중요하나 질이 매우 중요해서 얼마나 집중하는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정교육과 16학번 **강주경**(가정)





공부 외적인 시간을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시간을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줄이고 낮잠을 조금 잔다거나 산책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 교육학과 14학번 **임지웅**(전문상담)

시간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수는 교생실습도 다녀와야하고, 수업도 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관리를 위해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주로 허비하는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한 밥먹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최소화했고 그마저도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저는 그냥 아침에 나올 때 기숙사에 두고 스탑워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확실히 핸드폰과 멀리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더라구요! 이걸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 특수교육학부 16학번 **이민주**(중등특수)

Q.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또는 멘탈 관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꼭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체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여름과 가을에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수영을 했고 운동과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 화학교육과 14학번 **김정호**(화학)





Q.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또는 멘탈 관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 유아교육과 16학번 **송다은**(유아)

계절이 바뀌다보면 몸의 컨디션도 변하게 되고 공부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부마저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럴 땐 하루정도 휴업하셔서 원하는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든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슬럼프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부를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히 해야합니다. 교생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미래에 교단에 서서 수업을 하는 멋진 모습들을 상상하면 공부에 대한 의지도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슬럼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역사교육과 14학번 **김민재**(역사)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방법을 미리 계획하세요. 저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1주일에 1번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교직논술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하며 쉬었어요. 이처럼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되 너무 자주 안돼요.

- 특수교육학부 16학번 **이서정**(초등특수)

